

古蹟

이경성이 꿈꾸었던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보 1~3호

이경성 관장 원고 발췌본

1947

古蹟

이경성이 꿈꾸었던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보 1~3호

이경성 관장 원고 발췌본

194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지난해 가을, 국립진주박물관 장상훈 관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관보 『고적(古蹟)』 창간호와 2호, 3호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발간한 관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동안 초창기 박물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개관 1년이 지난 1947년에 간행된 세 권의 관보에는 석남 이경성 관장이 왜 관보의 이름을 ‘고적(古蹟)’이라 했는지,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박물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보를 찬찬히 읽어가며 박물관장이 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약관 스물아홉의 청년이 어찌 저 정도의 혜안을 가질 수 있었는지 감탄을 앞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 감탄과 궁금증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천시립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이경성 관장님께 감사함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소장, 인천시립박물관 관보 『고적』 1~3호의 내용 중 이경성 관장이 직접 집필했거나 공동 집필한 부분을 발췌하여 엮은 것이다.
2. 원문의 문체를 최대한 살리되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일본식 표기법은 바로잡는 수준에서 윤문하였다.
3. 원문에서 단순한 내용을 나열했을 경우, 이를 표로 재구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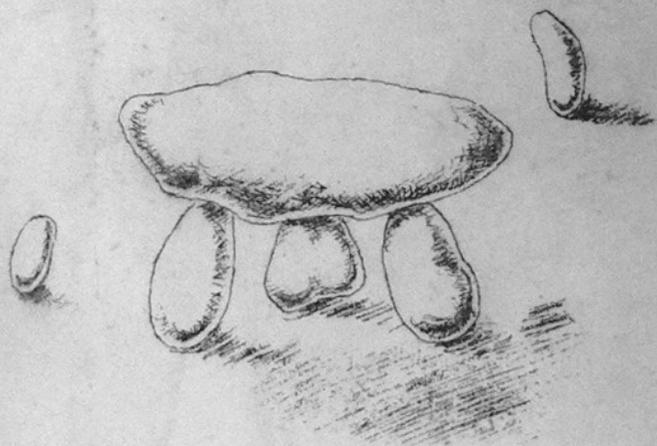
『고적』 창간호 표지	5
인천박물관의 방향	9
1946년 인천 문화계의 회고	12
『고적』 제2호 표지	43
개관 후 1년	47
고고학의 기초 개념	50
『고적』 제3호 표지	57
‘박물관학’ 수립에 관한 시론(試論)	61

國立博物館

古蹟

創刊號

增刊



報館博物館市立

고적(古蹟)

창간호

목 차

발간사	관장 이경성
인천박물관의 방향	관장 이경성
해방 후의 인천 음악계	최성진
1946년 인천 문화계의 회고	연구실
인천향토사연구자료 문헌수집	연구실
수필 인천항과 金田군	표양문
편집후기	
표지구성	최석재

1947년 2월

인천시립박물관보(仁川市立博物館報)

인천박물관의 방향

이 경 성

조선 사람의 박물관관(博物館觀; 고고, 미술, 역사박물관)은 너무나 천박(淺薄)하다. 소위 식자(識者)라 하는 사람들도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의 진열소 썸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 부족은 어디서 왔나? 총체적 문화 정도도 문제거니와 더욱 큰 문제는 고고학, 역사학 등의 학문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태도의 결핍과 그에 대한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조선의 역사학은 신화, 전설, 구비전승, 문헌 등을 기초로 구성되고, 일종의 신비로운 원시 의식이 전체 분위기를 감싸고 있다. 더구나 고고학은 전혀 미지의 학문적 분야다. 그런 이유로 고대인의 생활감정 같은 것을 연구할 적에도 막연한 설화나 또는 문헌 등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 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잠입하였던 도구(물질적 유물)의 형식학적 연구는 모르는 모양이다. 유물은 인간 의식의 소산이고, 또 문화의 “바로메타”이다. 한 조각의 석기에서 고대인의 생활 방법, 그리고 사색 능력 등 당시 사회문화의 표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물은 허위(虛僞)를 용서치 않는다. 여기 허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물의 가치가 있다. 허위가 성립되는 문헌을 도구로 삼는 역사와 허위가 성립되지 않는 유물을 기초로 한 역사, 그 진실성에 있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유물을 경시하는 동양적 역사 연구법이 결국 고고학의 미발달이나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져 온 근본적 원인이다. 물론 동양적 방법인 직관(直觀)과 서양적 방법인 논리, 법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직관’을 채용한다면 주관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고, 반대로 논리적으로 추구하고 양식적으로 연구한다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선에 있어서 박물관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학문적 세계에 근거를 둔 조선 사람의 생활 의욕에서 출발한 만큼 이러한 인식의 시정(是正)은 학문적 세계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박물관 제도는 서양에서 시작되고 또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MUSEUM(언어학상으로 예술의 여신 ‘MUSE’의 집이라는 뜻)은 멀리 동로마제국 시대에 전

리폼의 진열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박물관은 언어적, 제도적으로 MUSEUM의 번역이다. 물론 추측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신라 또는 고려 시대의 귀족, 부호가 자기 재산을 진열하여 지인들에게 전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있어 자기 소유의 좋은 물건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추측과 막연한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원을 갖는 박물관은 무엇인가? 정의적으로 말하자면 박물관은 고고, 역사, 미술 등 인공적 유물을 고금동서를 불문하고 수집, 보존, 진열하여 일반에게 관람, 연구케 하는 동시에 박물관 자체도 이를 연구, 발표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졌으니 교화(教化)와 연구가 그것이다. 종래의 인식에 따르면 교화기관이라는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이라는 점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천박물관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박물관에 수입이 적는데 관원(館員)이 많아 무슨 필요가 있느니, 소비기관이니 하는 인식 부족은 일소(一掃)되리라 믿는다. 박물관은 재정적으로 볼 때 소비기관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 창조라는 무형의 재산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있지 않은가? 인천박물관의 존재를 운운하려면 박물관론(博物館論)에서부터 시작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존재함이 자랑으로 생각되리라.

이제 인천박물관의 방향을 말할지니 곧 지리적 특수성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무역항이라는 데서 오는 인천의 국제성과 지방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향토성이 그것이다. 인천박물관의 국제성이라 함은 장차 외국 무역의 진전과 관광으로 말미암아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외국인의 박물관 관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현재도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서울까지 갈 수 없는 미국 해군과 외국 선원 다수가 인천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적이거나 조선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다시 출항한다. 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서울의 국립박물관보다 책임과 이용 가치가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다음 향토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인천의 향토사 연구가 아직 막연하다는 점, 간접적으로는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전국에서 좋은 유물만을 수집, 보존하고 진열하자면 국립박물관과 동일한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산의 우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 경우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지근거리에 무슨 박물관이 또 필요하단 말이냐”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운명적으로 향토사적 유물을 수집, 보존, 진열하여야 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천박물관은 인천 부근의 도서(島嶼)를 포함한 향토사 연구에 주력하고, 그 분야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 문학산 부근, 계양산 부근, 그리고 강화도, 덕적도에서 멀리 석기시대로부터 고구려, 신라의 유물, 유적을 답사하고 조선 최근세사에 등장한 제물포 시대를 중심으로 외적의 침략에 대한 진실을 과학적으로 진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천박물관의 나가야 할 방향이고, 근본 사명이라 믿는다. 향토사의 연구편찬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인천박물관이 인천의 사라진 문화를 발견하고 향토 인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공헌한다면,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 때는 “인천박물관은 무엇하러 설치되었는가?”하며 떠드는 사람들도 없어지리니 그리하는 것이 박물관으로 보아도 좋고, 인천시민으로 보아도 좋을 일이다.

우리 인천박물관은 이러한 정신과 방법으로 이 방향에 정진하고 있다.

1946년 인천 문화계의 회고

연구실 (이경성, 최석재)

I. 서론	2. 도서관
II. 예술계 - 예술관(藝術館)	3. 박물관
1. 문학	4. 교육「학교교육」, 사회교육
2. 미술	IV. 언론출판계
3. 음악	1. 신문
4. 연극·영화 기타	2. 잡지
III. 학술계	3. 서적
1. 국립관상대	V. 결론

I. 서론

회고(回顧)는 허상이라고 근대주의자들은 조소한다. 과연 회고는 단순한 인간 정수(情操)에서 나오는 감상일까? 무신론에서 오는 인간 절대사상과 영국의 산업혁명에 원인을 둔 기계관적 세계관이 온갖 가치를 반복시키려 하고, 폭풍적인 활동성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한 결과 회고와 같은 정적인 사색 태도를 값싼 허상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인간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된 하나의 선을 시간적으로 역행하는 한, 회고 즉 과거-인류의 과거, 개인의 과거-를 고찰하여 전체로 이어지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또 필요하리라 (이러한 심적 작용이 학문적 체계를 구비할 적에 역사학이 탄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 후 헛수로 3년째를 맞이하여 정열의 범람과 세태의 혼탁, 사상의 혼란과 질서의 불안정이 농후한 인천 문화계의 지난 1년을 회고하여 깊은 곳을 흐르는 인간 의식과 전체적 고민을 고찰,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건국(建國)이라는 위대하고도 숭고한 목적을 앞둔 우리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과정이고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제 회고에 앞서 언급할 것은 인천 문화의 향토적 특성이다. 인천은 『동국여지승람』 및 기타 역사 기록에서 산견(散見)할 수 있지만, 역시 인천의 발전은 일본인의 침략사에서 시작한

다. 그러므로 타 도시에 비해서 사적(史蹟)이 적고 일본적 색채가 농후하여 소위 조선적 전통성이 결핍한 곳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외래자요, 또 무산 계급과 중소 상인들이다. 그러나 일정(日政) 시 공업지대로 대 공장이 속속 건설되어 막대한 공장 노동자가 집중되었다. 또 해양(海港)이라는 특수성이 물자의 집산을 쉽게 하는 한편, 인구의 집산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인천 문화는 저급하고 고유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에 속한다. 그러나 인천 문화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저급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의미의 인천 문화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러면 인천 문화의 특성은 무엇이나? 인천은 서울이 소비도시인 것에 반해 생산도시, 노동도시 생활도시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은 물질의 소비와 정신의 소모를 생활의 근본으로 하는 곳이라면, 인천은 물질을 생산, 교역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 장소인 셈이다. 과거의 세계사가 일부 강권자의 기록이고, 과거 세계 문화가 일부 귀족 부호의 생활에서 나온 까닭에 완전한 의미의 보편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현대적 관찰은 과연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인생의 참다운 의욕과 생활을 표현하여 보존할 조건으로 구체화한 것이 ‘문화’이고, 중단 없이 유지되는 일반의 생명 현상이 ‘인생’이기에 인간 의식의 소산(所産)인 ‘문화’는 ‘인생’과 같이 유전적이며, 생활 그 자체와 분간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활을 떠나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 명제로 말미암아 현대 문화는 생활이라는 생명이 있는 입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인천 문화를 고찰한다면 인천이 생활도시인 까닭에 인천 문화는 생활 문화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바로 그 ‘생활 문화성’이 인천 문화의 특성이요, 또 문화 발전의 유일한 모태가 된다. 종래의 문화 유형과 다른 새로운 문화 유형이 생성되었으니 곧 인천 문화와 같은 생활 문화이다.

II. 예술계 - 시립 우리예술관

항도(港都)이지만 좋은 의미의 전통이 없는 인천이 예술적으로 보잘 것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화인의 도시라기보다 선원(船員)의 도시, 산업인의 도시, 중소상인의 도시인 인천이 예술적일 까닭이 없다. 그러나 해방 후 이 땅에도 항도 예술가의 성의와 노력으로 예술 활동이

화려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효과를 일으키는 생산 활동과 그의 소산 성과, 즉 문학, 음악, 예술의 총칭이다.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발달이라 함은 즉 예술의 보편화와 동의어이다. 이제 인천의 예술계를 각 부문별로 전망하여 보리라.

우선 시립 우리예술관에 언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우리예술관의 창설 그 자체가 1946년 인천예술계에 가장 위대한 창작인 까닭이다. 20세기 인류 문화의 특수성은 개별적 문화의식이 종합적 문화의식으로 발전하려는 필연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종합적 인간 완성이라는 고전인의 이상이 또다시 부활한 것이다. 고로 예술의식이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부문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적 예술 활동을 전제로 하여 표현방식, 표현재료 등을 고찰하는 경향이 절대적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적 예술의식은 일찍이 희랍, 로마의 사람들이 소유하던 소위 고전 예술의식이었다. 이러한 현세 인류의 예술 사상을 구현화한 것이 곧 예술관(藝術館)이다. 개관 시 발표된 「예술관 설치의 의의」라는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 예술관 탄생의 의의는 예술과 생활을 개재(介在)적 존재로 인식하여 예술을 생활화시키고 생활을 예술화시킨다는 것과 고전적 예술을 계승하여 신 예술 창조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창의적 자세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일반인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예술인의 창작을 보조 육성하여 줄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예술관을 통하여 우리는 고전(古典)의 정직한 가치를 연구, 발표하며 예술사의 체계를 수립하고 일면 예술의 보편화를 기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예술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따라서 조선 사람의 생활감정을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결국 예술관은 그 기능을 대별(大別)하여 대외적, 대내적으로 구분한다. 대외적으로는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보편화라는 능동적 활동을 계속하고, 대내적으로는 예술가의 육성, 예술의 연구라는 방법으로 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관 창설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전 인천시장 임홍재(任鴻宰)씨, 전 군정장관 스틸맨 중좌, 전 교육관 흠펠트 대위, 초대관장 이경성씨, 현 관장 이건영(李建英)씨, 현 연구조사실 이영식(李英植)씨, 박물관 연구실 최석재(崔錫

在)씨, 그리고 시청 각 부서 직원들과 인천의 재야 문화단체 여러분, 물질적으로 원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이다. 조선 예술의 발전, 육성이라는 위대한 포부를 가진 우리예술관의 존재 가치는 앞으로의 활동 여하에 달렸고, 그 활동이라는 것은 관원 일동의 성의와 노력에 달려있지만 시민들의 호의적 원조와 이용에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예술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연구조사실, 사업계, 서무계, 그리고 관원의 수는 관장 이하 6인이다. 이제 예술관의 업적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8월 14일 ~ 9월 8일 해방기념, 개관기념 미술전람회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예술관
- 2) 9월 16일 윤봉숙(尹鳳淑) 동양자수개인전람회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예술신문사
- 3) 9월 11일 ~ 9월 15일 벽시전(壁詩展)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인천문학동맹, 시와 산문 동인회
- 4) 9월 25일 ~ 10월 8일 고서화전(古書畵展) - 박물관 특별출품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예술관
- 5) 10월 16일 ~ 10월 25일 박성규(朴性圭) 파스텔화 개인전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예술관
- 6) 10월 29일 ~ 11월 10일 제1회 전인천 남녀중학교 미술전
 - 장소 : 예술관 화랑
 - 주최 : 예술관, 기타
- 7) 8월 26일 시와 산문 발간회
 - 장소 : 예술관 음악실
- 8) 9월 16일 윤봉숙(尹鳳淑) 자수좌담회
 - 장소 : 예술관 음악실
- 9) 9월 18일 ~ 9월 22일 동산중학교 사생회
 - 장소 : 예술관 야외
- 10) 11월 15일 ~ 11월 25일 인천중학합창대 연구회
 - 장소 : 예술관 음악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4일 개관 이래 12월 말까지 동관 이용자의 통계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립 우리예술관 이용객 현황 (1946. 8. 14. ~ 12. 31.)

구분	일반	군인	학생	합계
이용인원	1,387명	247명	5,025명	6,659명

1. 문학

문학은 언어표상, 또는 문자로 표현되는 정신적 산물, 특히 공상(空想) 및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적 산물을 가리킨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이 조선어 말살과 언론 억제에 중점을 두고 조선 사람의 사상을 소위 황민화(皇民化)시키려고 노력한 까닭에 조선의 문학은 발전치 못하였다. 해방된 오늘날, 학자는 문학의 체계를 잡으려고 당황하고 문인은 서투른 문체와 훈련 없는 붓대로 미경험의 인생을 그리려 애를 쓰고 있다. 인천 문학계의 상황도 이러한 전체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생각되고 인천의 문인 역시 이러한 타경(他境)에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의 감격을 억제할 수 없어 과거에 못하였던 집단적 문학운동을 전개함으로 자기만족을 느꼈다. 이제 시간적 순서를 따라 이들의 걸음걸이와 업적을 살펴보자.

1) 신예술가협회

경인 지방의 저명한 문학가 오장환(吳章煥)씨, 배인철(裴仁哲)씨, 미술가 김만형(金晩炯)씨, 최재덕(崔載德)씨 등을 모아 신예술 창조라는 의도 하에 출발한 이 신예술가협회는 전원의 열렬한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배인철씨 개인의 초인적 정열과 성의로 성립된 만큼 내부적 성격이 꺾이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해방 직후 해방 기념 미술전을 개최하여 인천 예술계의 선편(先鞭)을 잡고 자극을 주었고, 3월에는 시인 오장환씨를 중심으로 '낙랑다방'에서 '시인의 밤'의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기관지 『신예술』 발간도 계획하였으나, 그 후 회원의 일산(逸散)과 주동적 인물 배인철의 출인(出仁)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하게 되어 현재 신예술가협회라는 간판이 인천 북부 모씨 주택에 걸려있을 뿐이다. 문학과 미술의 교류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려는 이 협회가 현재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동일한 관념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신 예술가협회의 재생!! 그것은 누가 언제 무슨 방법으로 달성하나! 또는 단순히 역사적 존재로만 남을 것인가?

2) 인천 문학동맹

해방 직후 결성되어 중단되었던 통신기관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벽신문(壁新聞)과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건준(建準)과 인민위원회의 외곽단체로 강렬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선전에 종사해 오던 신문화협회, 문예탑사(文藝塔社), 이동세계사 등이 연합하여 설립한 것이 인천 문학동맹이다.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봉행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학적 이념, 즉 과거의 문학이 민중의 생활에서 파생된 것을 표현하고 만족하였음에 반해 어디까지나 민중의 생활 속에서 민중과 더불어 그들의 현실을 표현하려는 이념으로 신조선 문학의 수립을 위하여 이바지하고자 정열에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탄생된 것이다. 살아있는 현실, 정치적 기술로 사회복리를 촉진하려는 요청이 이들 문인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자기가 진리라고 인정한 노선에 매진(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떠나 예술이 성립되는가의 문제는 현대 예술계의 공통된 문제인 바, 인천 문학동맹도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치와 문학을 밀접히 관련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시인 김기림(金起林), 오장환 씨를 초빙, 2월 23일 제2공회당에서 『시의 밤』을 개최했는데 자못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기관지 발간을 계획하여 인가도 얻었으나 왜 그런지 아직 발간치 않고 있다. 생각건대 인천 문학동맹은 인천의 선봉에 선 문인들의 집합으로 그들의 문학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동이 없음은 웬일인가? 온갖 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의문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자못 흥미로운 일이었는데 지난 1월 11일 하오 4시 예술관에서 인천 문학동맹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조선 문학가동맹 인천지부로서 결성식을 거행하였는데 동맹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엄흥섭(嚴興燮), 부위원장 한상억(韓相億), 서기장 윤기영(尹基渙), 집행위원 송종호(宋宗鎬), 한재성(韓載成), 김영순(金永淳), 김경태(金京泰), 이영식(李英植), 최덕립(崔德立) 등 제씨(諸氏)들이다.

3) 전진동인회(前進同人會)

일찍이 일제시대부터 온전히 인천사람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시를 공부하며 동인지를 발간하여 왔다. 그리하여 해방을 맞이하자 억제할 수 없는 환희와 젊은 열정이 시감(詩感)을 통하여 그들 가슴에 넘쳐흐름을 모아 탄생한 것이 전진동인회이다. 이 동인회의 동인들은 모두 젊다. 가슴에 북받치는 정열을 가지고 한결같이 싸우며 공부하고 있다. 신조선 문학이 문자 그대로 새롭고 아무런 전통의 흐름도 없으므로 우리는 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창작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신조선은 청년들의 무대, 신조선 문학은 청년작가들의 무대이다. 청년에게는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이 있다. 그리고 불타는 정열이 있다. 해방 후 꾸준히 공부하며 진실한 연구태도로 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오직 전진동인회뿐이다. 물론 그들 중에는 한 사람의 기성 시인도, 저명한 시인도 없을망정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본 동인회의 장래는 유망할 것이다. 이제 전진동인회의 업적을 회고하면 다음과 같다.

(1) 5월 5일~7일 어린이 사진가두전 (어린이날 기념행사)

장소 : 경동사거리

주최 : 전진동인회, 후진개화숙(後振開化塾)

(2) 8월 18일~20일 벽시전(壁詩展)

장소 : 낙랑다방

주최 : 전진동인회

(3) 10월 19일 시와 음악의 밤

장소 : 창영교 강당

주최 : 전진동인회

특별출연 : 인천음악동맹

그리고 동인지 『전진(前進)』 1집~6집까지 발행, 『방사선(放射線)』 전진개제(前進改題) 1집, 다시 『전진』 7집 발행, 주간지 『어린이』 1집~4집을 발행하였다. 인천의 문화인으로서 전진동인회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정열을 칭찬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금후 이들 젊은 정열이 무엇을 이루나 하는 것은 자못 흥미 있는 문제이다.

4) 시와 산문 동인회

고요히 잠자는 예술의 전당! 우리예술관 음악실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고, 인천의 예술인들이 엄숙한 낮으로 무엇인지 열심히 토론하고 있다. 그것이 끝나자 축하의 홍수가 창을 넘어 밤 잔디까지 흘러나온다. 탁상에는 신선한 과일과 정열을 담은 술이 놓여 있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비창(悲愴)한 결의가 가득하다. 민족문학 건설의 중책이 마치 그들의 두 어깨에 있는 듯! 그들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토론하였다. 사상의 홍수, 정열의 불길! 이러한 장면은 즉 '시와 산문 동인회' 발간 광경이다. 표기해(表氣海), 김차영(金次榮), 최덕립(崔德立) 제씨(諸氏)가 중심이 되어 문학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탄생된 것이 '시와 산문 동인회'이다. 이제 그들의 업적을 보면 동인지 『시와 산문』을 1집부터 4집까지 발행한 이외 아무런 행사도 가지지 않았다. 역사는 시간을 따라 가치화한다. 하나의 문학 운동도 시간을 거치며 빛난다. 시와 산문 동인회의 성격은 아직 막연하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부르짖고 있나?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상의 개략적인 인천 문학계의 전망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하고자 함은 인천의 문학가들이 아직까지 소위 예술적 고난기에 있고, 성실과 자신감을 가지고 창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리적(功利的) 생리작용으로 자기를 가치 이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인천 문학의 출발은 이러한 자기 기만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된다.

2. 미술

미술이라 함은 무시간(無時間) 성형식(性形式)으로 실재적 공간에서 성립하는 예술이다. 표현이 없이는 미술도 없다. 표현이라면 내면적인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적 혹은 공간적 또는 시공간적 형식으로 감성적인 구상성(具象性), 현실적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내면적인 것이 감성적 존재로서 실재적 공간에서 표현되고 그것이 시간성을 상실하여 공간성에 정착한 형식적 존재일 적에 이것을 조형예술이라 칭하고, 회화, 조각, 건축, 공예가 이것에 속한다.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은 상호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공간 형식적 예술에 관한 것들이다. 즉, 공간과 관계가 있는 예술을 의미한다. 예술적 공간성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어느 것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 즉 건축(공간 창조, 공간 형식)

둘째, 공간성 있는 어느 것이 만들어지는 것, 즉 조각(공간 존재, 공간 형태)

셋째, 공간적인 것의 표현. 공간성의 간접적 표현, 즉 평면묘사 예술(공간 표현, 형태 공간)

미술에 있는 이러한 공간 형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예술은 기본적인 세계사실(世界事實)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는 입체 기하학적인 것, 조각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유기적인 것, 회화에 있어서는 무제한으로 체득한다. 여기에 건축, 조각, 회화의 원리가 인정된다. 이들은 상호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엄밀히 분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들 셋의 관계로부터 구축적, 조각적, 회화적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 양식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구축적 양식은 건축에서 볼 수 있다. 건축의 근본 개념은 입체 기하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초 설치의 예술이고, 가장 실재적인 형식의 예술이다. 조각적 양식의 근저를 형성하는 것은 신체적 유기성이다. 이 양식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조각의 예술형식을 고찰한다면 거기서 유기적 결합, 각각 독립하고 종합된 부분 중에서 계단화된 통일성이 이 양식의 본질이다. 회화적 양식은 국한되지 않은 다양성의 표현을 생명으로 하는 회화의 근본 성격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색채 융화(融和)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간의 원근법적 기구(機構) 등 다양한 관계들이 모두 교착(交錯)할 적에 이 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축적 양식에서 조각, 회화적인 것을 볼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조각적 양식 및 회화적 양식에도 다른 양식들을 볼 수 있고, 이 양식들은 복합적인 관계로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술은 조형성을 띠고 더구나 인간 미의식을 조형적, 공간적으로 규정한다는 근본 성격으로 인하여 미술가는 그의 예술 의식에 있어 가장 근대적이다. 근대적이라면 완전한 고전계승과 창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미술가는 공부하지 않기로, 또 자기 고집을 관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례를 들자면 해방 직후부터 태동하였던 미술단체가 갖은 풍파를 겪고 비로소(그것도 일부 미술가는 불참가) 작년 12월 9일 열매를 맺어 인천미술동인회라 칭하여 새롭게 발족한 것을 보아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건대 미술가의 시대인식은 다른 예술가보다 둔한 것 같다. 좌우간 인천의 미술가가 문학가나 음악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구비(예술관의 존재)하고도 이러한 미술활동의 미비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오로지 그들 미술가 자신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재인

(在仁) 미술단체로서는 12월 9일 다방 '세루땅'에서 결성된 인천미술동인회가 유일한 존재이다. 이 동인회는 미술가에 단결심 결핍이라는 약점을 통탄한 유지(有志), 즉 이건영(李建永), 최석재(崔錫在), 김순배(金舜培), 김숙희(金蓀熙), 임직순(任直淳), 김기택(金基澤) 등의 단합된 뜻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들은 인천의 미술을 향토적 특수성까지 끌어올리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동인 상호 간의 친목과 연구를 도모하려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이제 1946년도 인천에서 개최된 미술전람회를 회고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1주년 기념, 예술관 개관기념 미술전람회

일시 : 8월 14일 ~ 9월 8일

장소 : 예술관 화랑

주최 : 예술관

미술전람회 관람객은 해방 후 열린 어느 전람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우선 동양화부에 있어 현재 조선 남화계(南畫界)의 제일인자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선생의 신작 두 폭이 이 전람회의 가치를 높였고, 이건영, 노수현(盧壽鉉), 이호상(李虎賞) 등의 역작이 아름답고도 유명(幽明)한 동양화적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서양화부에 있어서도 김만형(金晩炯), 최재덕(崔載德), 김순배(金舜培) 등의 작품이 자못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조각부에서는 조규봉(曹圭奉)의 섬세한 감각과 이국전(李國銓)의 풍부한 볼륨, 그리고 김경승(金景承)의 쾌적한 면이 입체적으로 장내를 장식하였다.

2) 윤봉숙(尹鳳淑) 자수개인전

일시 : 9월 10일 ~ 9월 22일

장소 : 예술관 화랑

주최 : 예술신문사

'매너리즘'의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조선 자수계를 예민한 감각과 힘찬 창의, 그리고 세련된 기법으로 혁명적으로 개혁한 것이 이 전람회이다. 새로운 수법!!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 그것이 자수도 '리리푸(relief)'와 같이 입체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염색의 고려, 배색의 성공이 자수도 회화처럼 단면적 실감을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인천의 남자가 놀랐고, 인천의 여자가 놀랐다. 창의!! 높게 찬양하리라.

3) 고서화전(古書畵展)

일시 : 9월 25일 ~ 10월 8일

장소 : 예술관 화랑

주최 : 예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고서화 10여 점을 특별전시한 것으로 이조 말엽의 거장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의 걸작을 비롯하여 겸재(謙齋) 정선(鄭敼)의 산수 두 폭과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화가 진열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의 고전 미술을 이해함에 다대한 도움이 되었다.

4) 박성규(朴性圭) 파스텔화 개인전

조선의 자연은 아름답다. 더구나 조선의 하늘은 세계 어느 지방보다 아름답다. 아침의 온화하고 청신(淸新)한 하늘! 석양의 화려하고 엄숙한 하늘! 그리고 고려자기를 만든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 가을 하늘! 이러한 조선적 풍경을 완전히 재현하는데 유화도 수채화도 동양화도 도달할 수 없는 방법이 있으니 곧 파스텔화가 그것이다. 따뜻한 중에도 힘을 내포하고 있는 그의 '마치엘' 아름답고도 화려함 중에도 건실성이 넘쳐흐르는 색감! 이제껏 '파스텔화'가 불행한 운명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유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활용하는 파스텔 화가가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5) 제1회 전인천 아동미술전

일시 : 6월 25일 ~ 7월 15일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주최 : 인천시립박물관

조선의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이 때, 제2국민의 정서교육에 착안하여 개최된 것으로 주최자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다.

“공경하는 좌하. 아동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상상과 주관의 고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도 가능해집니다. 참으로 아동의 세계는 예술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국의 시인 '워스워스'가 그의 시에서 말한 “아동은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아동의 세계를 짜내 건국 대업에 직접, 간접으로 진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무엇을 주고, 더구나 편견과 고집으로 정도(正道)를 잃어버린 어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이 기회로 조선의 아동이 미술을 통하여 정조(情操)를 훈련하고 사상과 감정을 관치

(關治)하여 좀 더 아름답고 참된 생활을 함에 진선미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게 됨을 바라는 바 올시다.”

그리하여 이 전람회를 계기로 아동들의 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고, 사회인도 이들 순진한 아동들의 세계를 엿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6) 제1회 전인천(全仁川) 남녀중등학교 미술전

일시 : 10월 29일 ~ 11월 10일

장소 : 예술관 화랑

주최 : 예술관

인간은 사상의 주체이다. 사상의 우열로 인간의 우열이 결정된다. 이제 사상이 태동하는 시기를 초등학교 시대라 하면 사상이 무르익는 시대는 중학교 시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학생의 미의식을 선도하고 그들의 사상을 미화시키려는 생각으로 개최된 이 전람회는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효과를 거두었다. 각 학교의 출품 태도도 성실하고 작품마다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가 좋은 미술 선생이 없어 학생의 연구열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의 동산중학, 인천고녀, 인천공업 개최의 미술전 등이 있어 각 학교가 미술교육에 진력한다는 것을 보여줘 인천 미술의 장래를 약속하는 감이 농후하다. 결국 미술 단체가 없어도 비교적 다사로운 전람회를 가졌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예술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귀착된다. 인천 미술의 흥망이 우리 예술관의 흥망과 노선을 같이한다 하면 누가 항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3. 음악

언어는 최초 음악적 형식(원시적)으로 시작되었으리라는 것은 언어학 연구, 토속학 연구 발전에 따라 분명히 되어왔다. 예술사에서는 음악이 모든 예술에 앞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음악은 미학상 직관예술이라고 불리는데 ‘리듬’, ‘하모니’의 원리로서 음의 고전 음색을 재료로 하고 ‘멜로디’로 여러 가지 미술형상을 만들어 내어 미적 효과를 야기시키는 예술이다. 또 사물적 표상의 매개 없이 감상적 자극이 직접 안으로부터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이 발생학적으로 다른 예술보다 선행하였고, 또 왕왕 최고 예술이라는 영예를 갖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음악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음악은 예술 중 최고 예술이며, 인간의 깊은 감정 체험 '의지의 가장 깊은 역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물체 자체로서의 원 의지. 우주의 신비는 음악으로 직시되고 우리들은 음악으로 말미암아 고민에 찬 현실계를 벗어나 절대계를 직시한다. 고로 음악은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 해탈 중 최고의 것이다. 음악은 그의 외적 수단으로 기악과 성악으로 분류되고, 그 성립 상으로 작곡과 연주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음악을 듣고 미를 느끼고, 혹은 오락이 되고, 혹은 교화되고, 혹은 생활의 표현이 된다. 참으로 음악은 인간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음향이며, 향기이다. 음악은 물질적 결핍에 우는 영혼을 높은 천상으로 이끌어주고 영원과 시간을 접근시키는 신비로운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각자 고유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인천 음악계를 시선을 돌려보자. 원래 조선 음악은 귀족 음악과 평민 음악으로 분류되는데 전자는 중국 음악을 직수입하여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 된 것으로 현재 구 왕궁 아악부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지금 민간에 유포되고 있는 것이로되 애조로운 선율을 가지고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강조하는 소극적 소시민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 외국 음악의 수입과 아울러 조선 음악은 또 두 분야로 나누어졌으니 곧 소위 가곡파와 유행가파가 그것이다. 가곡파라 함은 교향악 등 비교적 고전적 가치가 있는 음악을 애호하는 사람들을 지적함이고, 유행가파라 함은 전래된 조선 가요에다 비열(卑劣)한 일본적 선율과 음색을 가미하여 역시 체관적(諦觀的), 비열적인 가요를 사랑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예술부문 즉 문학이나 미술도 그렇지만 음악도 참으로 미묘한 사회적 조건 하에 있다. 건전하고 예술성을 띠는 조선 음악의 탄생. 거기에는 장구한 세월과 많은 음악가의 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다음 인천 음악계를 살펴보자. 음악단체로는 인천음악협회와 인천음악동맹이 있다. 모두 향토문화를 음악적 분야에서 발전시키는 한편, 조선 민족의 생활 속에 음악을 침투시키자는 데 그들의 근본정신이 있다.

1) 인천음악협회

고 문 : 임홍재(任鴻宰), 신태범(愼兌範), 박남칠(朴南七), 임영균(林榮均), 김진택(金鎭宅), 손계언(孫啓彦)

위원장 : 이필상(李弼商)

상 무 : 최성진(崔星鎭), 신현엄(申鉉琰)

감 독 : 박봉희(朴鳳熙), 김창환(金昌煥)

위 원 : 김현순(金賢順), 박수득(朴壽得), 김표성(金表成), 정호동(鄭鎬東), 이용민(李容敏), 엄기륜(嚴器崙), 유경희(劉慶姬)

2) 인천음악동맹

위원장 : 신현엄(申鉉琰)

서 기 : 박수득(朴壽得), 양동식(梁洞植)

인천 음악계의 행사를 시간적 순서를 따라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해방 후의 인천 음악계에 있음으로 생략함)¹⁾. 이상의 행사를 통해 느끼는 것은 음악이 민중 생활과 비교적 접근하고 있는 까닭에 민중 생활의 측근에서 그들을 계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논자가 말하는 '음악가는 시대의식에서 멀다'라는 비평에도 불구하고 인천 음악가가 직접 거리에 나아가 전재(戰災) 동포, 수재 동포 구제라는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음악적 방법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4. 연극·영화

1) 연극

와그너(Wagner) 이후 종합예술로서 발전하여 온 연극은 근대인의 예술의식이 종합적으로 정립됨에 비례하여 발전해 왔다. 희곡의 과정 및 인물을 무대 위에 연출하려는 목적, 그리고 배우는 극적 연출의 수단에 따라 그 인격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무대장치에 참가하는 건축과 미술,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완전한 의미의 종합예술, 즉 연극이 성립된다. 원래 연극은 이러한 고도의 문화성을 띠는 매체이지만 현재 조선 연극계는 일종의 막대한 흥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지만 너무나 야비하고 예술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조선 연극이다. 물론 좋은 각본의 결핍, 배우의 연기 미숙, 물질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연극단체의 대부분이 소위 직업적으로 운영하려는 흥행사의 지배하에 있는 한, 완전한 예술적 계획이나 예술적 효과는 등한시 되고, 민중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상

1) 「고적」 창간호 3~4쪽에 게재한 당시 시립도서관장 최성진(崔星鎭)의 『해방 후의 인천 음악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편집자註).

연하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극도 예술, 더구나 종합예술인 까닭에 이러한 비속성(卑俗性)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열가 김도인(金道仁)씨를 중심으로 한 인천연극동맹은 인천의 연극단체이다. 그러나 이 동맹의 활동은 전혀 소극적이에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그 외 인천의 연극단체로 혁민극회(革民劇會)가 창립되었고 지나간 1년 동안 수많은 극단이 공연하였다. 듣건대 조선 연극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돈다고 한다. ‘극단이 인천 공연에서 실패한다면 다른 지방에는 갈 생각도 말라고...’ 즉, 인천이 연극의 성공과 실패를 헤아리는 도량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런지 인천에는 극단도, 공연도 많고 또, 대중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회나 미술전보다 오히려 값싼 연극을 반갑게 맞이한다. 불행한 사실이다. 이제 인천에서 공연한 연극 중에 소소한 것을 선택하여 열기하겠다.

표 2. 1946년 인천 내 연극 공연 현황

일시	극단	제목	구성	장소	비고
1946. 4.	낙랑극회	학생과 33인	4막	애관	3.1절 기념행사
1946. 4.	자유극장	선구자	3막	애관	
1946. 5.	혁민극회	정충당(正忠黨)사건	3막 5장	애관	
1946. 5.	혁명극장	북위 38도	4막	애관	
1946. 7.	토월회	아느냐 우리의 피를	4막 6장	애관	윤봉길 사건
1946. 8.	토지(土地)	밤	2막 4장	애관	
1946. 9.	방어리 극단	남모르는 사상	4막	애관	
1946. 10.	예술극장	임진왜란	4막	애관	
1946. 11.	예술극장	의기(義妓) 논개	4막 5장	애관	
1946. 11.	보춘(普春)극장	안중근 사기(史記)	4막	애관	
1946. 11.	황금좌	단종애사(端宗哀史)	3막	애관	

시야를 확대하여 멀리 영국으로 그리고 17~8세기로 역행시켜보자. 영국 엘리자베스 조극(朝劇) 운동²⁾, 그리고 세계 문학의 대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 연극의 융성(隆盛), 예이츠를 중심으로 하는 아일랜드 연극 운동, 이러한 움직임이 예술의 제1선에서 그 민족의식을 강렬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영국문화 전체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연

2)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연극 운동을 말한다(편집자註).

극의 구체적 현실성은 민중을 가장 강하게 계몽시킬 수 있고, 민중의 생활수준을 지양(止揚)시킬 수 있다. 우리의 연극 운동은 언제쯤 이러한 본래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연극의 순수성에 대한 것이다. 순수 연극이 상술(上述)한 곤란으로 말미암아 흥행이 불가능하다면 진정으로 연극을 사랑하는 사회 인사가 모여 소인(素人)극단을 조직하여 연극 연구에 공헌하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인천에도 이러한 소인극단이 탄생되어 향토문화를 측면적으로 원조하여 소위 직업 연극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2) 영화

영화가 예술성을 구비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20세기의 미학이 이미 자연과학적 방법을 취해 근대적 분장을 완성한 이때에 묵은 문제 중 하나다. 과학적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현상이 현대인의 미의식을 자극하는 한,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는 한 그 가치는 결정적이다. 사진술의 발달이 현대 문화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도 사실이거니와 영화가 20세기 인류의 가장 좋은 동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는 가장 간단하게 고전문학을 논의하고 더구나 발성기(發聲器)의 완성과 아울러 음악도 표현할 수 있다. 또 천연색 영화의 성공은 미술적 세계까지 돌입하였다. 연극이 입체적 의미의 종합예술이라면 영화는 평면적 종합예술이다.

인천의 영화사를 들자면 최철(崔鐵)씨의 노력으로 설립된 건설영화사가 현재까지 다음의 제 작품을 제작하였다.

- ① 위생영화 : “무영의 악마(無影의 惡魔)” 제작자 최철
- ② 산업영화 : “조국을 위하여” 제작자 최철, 이명용(李明龍), 손용달(孫勇達)

결국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인생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인지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더구나 문화 경도(輕度)가 심각한 우리들의 겨레를 그의 지적 빈곤과 우매에서 구제할 수 있으리라. 영화는 참으로 시대의 총아(寵兒)다.

III. 학술계

예술이 미를 대상으로 하고, 윤리는 선을 대상으로 하고, 학문은 진리를 대상으로 한다. 통례적으로 학문이라 하면 과학과 철학을 의미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지식이 체계화된 것을 가리킨다. 체계화라 함은 약간(若干)의 명제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합목적(合目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우리는 진리 탐구의 목적을 가지지 못했었고, 진리라 인정한 것도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였었다. 이제 해방된 오늘, 우리는 먼저 연구의 자유를 가졌고, 진리 인정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진리를 연구하여 진리로서 인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민족문화 내지 인류문화 공헌에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반대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그러면 진리라 함은 무엇이나? 이 문제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첫째는 진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로되 ‘어떠한 명제, 학설, 학군 체계가 참인 것이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종교냐’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진리의 보편적 본질은 무엇이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철학적 설명이 있다. 이제 그것을 소개하겠다.

1) 인식의 진리(논리적 진리)

아리스토텔레스 및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진리는 먼저 존재자 자신이 아니고 존재자의 인식에 속한다고 한다. 진리는 우선 “사유와 현실적 사태와의 일치”이고 이 일치하는 진성(眞性)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비 존재자에게는 그것이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적에 성립된다. 그리고 진리의 표식은 사태의 진증(眞證)이고, 이 진증은 사태가 직접 직관의 대상이 되던가, 또는 직관적으로 제시되는 대상으로서 추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표시되는가를 불문하고 사태가 증명되면 성립되는 것이다.

2) 존재의 진리(존재론적 진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진리는 존재자 그것에 있다고 한다. 존재자의 진리를 주장하는 이 학설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오히려 플라톤 및 오거스틴에서 유래한다.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와 인식과의 일치”이다. 그러나 존재자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인식과 일치할 필요가 없

다. 즉 일체의 존재자는 진(眞)이요, 또 일체의 진(眞)은 존재한다.

3) 언설(言說)의 진리

언설의 진리는 논리적 의미에 있어 현시적 사태와의 일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 있어 언설과 설자(說者)의 판단, 즉 내적 확신의 일치라고도 해석된다. 그럴 때 그 진리는 성실과 같고, 그 반대는 즉 허언(虛言)이다.

4) 행동의 진리

행동, 즉 생활의 진리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행위, 비 행위를 인식된 진리의 지도(指導)에 맡기는 것. 따라서 또 존재자 그것으로부터 다시 말해 존재의 모든 질서만이 자신의 위치에서 생기는 제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리를 행한다고 말한다. 결국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技術)이 즉 학술이다.

이제 향토 인천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학술체(學術體)를 국립중앙관상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관찰하여 보리라

1. 국립중앙관상대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방송을 들은 후, 인천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과학 조선의 최대 아성(牙城) 국립중앙관상대 문제이다. ‘왜놈들이 혹여나 파괴하지는 않았나?’ 그러나 우리들 손으로 엄연히 확보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인천의 인사들은 또다시 ‘조선 사람의 손으로 기상대를 완전히 운전하여 갈 수가 있나?’ 하고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기상대가 우리 조선 사람의 손으로 완전히 운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고서야 민심은 안정되었다. 그러면 이다지도 관심을 갖게 하는 국립중앙관상대는 무엇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기상계의 총 중심은 조선 천문학의 아성인 것이다. 그 통신망은 조선 각지는 물론 멀리 시베리아, 중국, 일본 등에까지 연장되어 국내 각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내일의 일기를 예보하여 주는 기관이다. 또 조선 천문학을 일신에 담당하여 역서(曆書) 편찬 그 외 각종 천문학적 사업을 운영하여 나간다. 참으로 국립중앙관상대는 조선의 국보적 존재이고, 세계 기상계의 중진(重鎮)이다.

이러한 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은 그를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인천 인사의 이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냉정하다. 이 현상을 어찌 해석하나? 선의로 해석할 적에 마치 물과 공기에 대한 사람의 태도처럼 생각이 습관화되어 새삼스러이 느끼지도 않고, 또는 문외한인 우리로서는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의탁하려는 신뢰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의로 해석하려면 그의 무지와 무관심을 한없이 비난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천에는 수산업자들이 많다. 그들이 해수기상, 향해 같은 곳에 관상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반성할 여지가 많다. 향토의 자랑 그리고 조선의 자랑인 국립중앙관상대는 곧 인천에 사는 여러분의 자랑이 아닌가? 우리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간접적이거나 원조하는 것은 결국 인천을 사랑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제 국립중앙관상대의 걸음걸이를 회고해 보자.

- 1945년 10월 1일 국립중앙관상대 접수
- 1946년 6월 미국시카고대학 Rossby 박사가 기상 연구서적을 25회에 걸쳐 송부
- 1946년 6월 본 중앙관상대로부터 90회의 연구보고를 미국 시카고대학으로 송부
동시에 미국 워싱턴대학에도 4회를 송부
- 1946년 9월 등대원 30여 명 강습
- 1946년 11월 1일부터 일간 기상도 발행
- 1946년 11월 3일 호주정부가 지표(地標)에 관한 연구조사보고를 요구, 관계서류 송부
- 1946년 11월 5일 맥아더 사령부를 통해 관측 기계를 미국으로 주문
- 1946년 11월 22일 맥아더 사령부를 통해 측후 기계를 미국으로 주문
- 1946년 12월 미국에서 기상, 수학, 물리 등 연구서적 발송 통지서 접수
미국에 유학시킬 기수(技手) 25명 강습
- 1946년 12월 10일 세차(歲次) 정해년(1947) 역서(曆書) 발행

그리고 현재 관상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관상대장 이원철(李源喆) 박사, 부대장 국채표(鞠琛表), 서무과장 김창식(金昌植), 예보 및 통계과장 조영근(趙永根), 천문과장 김시중(金時中), 관측과장 김제욱(金濟郁). 결국 관상대는 과학의 전당이고, 그의 활동무대는 전 지구다.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발전하는 그의 자태를 우리는 어찌 볼 것인가? 장차 관상대를 중

심으로 조선 최대의 천문관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관상대 여러 분에게 전달하여 드리고 싶다.

2. 인천시립도서관

인천 문화기관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시립도서관은 1922년 1월 6일 현 시립박물관에서 개관하여 25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줄곧 인천 문화를 위해 엄연히 존재하여 왔다. 원래 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를 수집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 고대에는 관청의 문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비되었고, 다음에 귀족의 자제 교육을 위하여 이것을 사설(私設)하였다. 중세에는 가톨릭 문화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은 대개 성당에 부속하여 설립되었고, 근대에 와서 비로소 일반 공중에게 열람시키게 되었다. 이렇듯 도서관 본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겪은 도서관의 운명을 고찰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해방 후 폐관 상태였고, 그 후 학교 교사로 사용되다가 1946년 3월 25일 비로소 개관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고, 참으로 도서관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사무적 관장을 맞이하여 도서관의 발전과 활동은 자못 국한된 감이 있었다. 즉 해방 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적의 수집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수 만권의 서적을 용이하게 입수하고 수다한 서적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관장을 물색 중이었던 바, 현 관장 최성진(崔星鎭)을 맞이하여 도서관은 다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최 관장의 초인적 희생과 노력으로 일본인 리키타케[力武]의 집을 교육관 홈펠트 대위의 주선으로 확보하고 12월 2일 이전식(移轉式)을 거행하고 3일부터 개관하였다. 완전한 정리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관내·외 사업을 활발하게 진전시키고 있다. 1946년 12월 30일 자 『인천공보(仁川公報)』 송년호에 게재된 도서관 발표문을 통해 동관의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 업적

작년 8.15 이후 단순히 생각하였던 해방은 과연 누구나 인식했던 비약(飛躍)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본 도서관만큼은 큰 영향을 받았으니 일본 관장 퇴거 후 우리네 관장 3인이 거침없이 이동되는 동시에 학교 교사 대용(代用) 등으로 본 도서관 건물 자체가 본뜻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3월 25일부터 개관하여 꾸준히 계속하다가 도서관 위치가 그리 적당하지 못하다고 느낀 신임 책임자는 좋은 기회에 미국 주둔군 호의에 따라 현재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도서관은 어떠한 위치라도 도서관 열람케 하면 만족스럽다고 하는 곳 보다 주위의 특히 자연미가 빼어난 곳이 독서인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한 현재 관사는 원래 주택이었던 만큼 불편 불합리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장래성을 보아 여유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도서관에 대한 숙성(淑誠) 관심 여하로 구조, 기구, 편모(片貌)의 변화, 즉 발전이 있을 줄 믿고 바라는 바외다. 앞으로 본관 내외 확장과 아울러 서고 증축을 긴급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도서관은 본래 빈약한 내용으로 된 것이나마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 문화에 큰 계몽과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하며, 정비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기계공학 방면의 도서를 일반에게 공람(供覽)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 장서관(藏書館)이 아닌 이상 열람인에게 만전을 기하려고 하며 동시에 인천 시민 전체가 “우리의 것”이라는 정의를 잊지 마시고 자주 내림(來臨)하시는 중에 일체가 되어 우리 강토 발전에 원동력인 도서문화기관의 배전(倍前) 애호하여 주심을 앙망하는 동시에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을 믿고 그간 열람자 상황을 통계로서 드리겠나이다.

표 3. 3월 25일~11월 3일(이전일)때까지 열람일수 187일간 열람인원수

구분	학생	종교·교원·기자	관리·군인	실업	기타	무직	신문	합계	
인원	남	1,938명	51명	125명	180명	286명	2,400명	1,503명	6,483명
	녀	66명	0명	0명	0명	0명	2명	12명	80명
소계	2,004명	51명	125명	180명	286명	2,402명	1,515명	6,563명	

표 4. 12월 3일~12월 23일 열람일수 19일간 열람인원수

구분	학생	종교·교원·기자	관리·군인	실업	기타	무직	신문	합계	
인원	남	542명	15명	49명	49명	6명	102명	148명	911명
	녀	19명	0명	2명	0명	0명	4명	3명	28명
소계	561명	15명	51명	49명	6명	106명	151명	939명	

표 5. 3월 25일~11월 3일 열람도서 책수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도서·문화	217권	7권	224권
종교·철학·교육	1,427권	0권	1,427권
문학·언어	2,402권	9권	2,411권
지리·역사	64권	2권	66권
법률·사회·병사·경정	866권	27권	893권
과학·의학·공학	1,497권	23권	1,520권
산업·교통·통신	500권	0권	500권
미술	339권	1권	340권
국토	215권	3권	218권
잡지	66권	0권	66권
계	7,593권	72권	7,665권

표 6. 12월 3일~12월 23일 열람도서 책수

구분	남자	여자	합계
도서·문화	50권	6권	56권
종교·철학·교육	352권	5권	357권
문학·언어	273권	9권	282권
지리·역사	63권	0권	63권
법률·사회·병사·경정	171권	2권	173권
과학·의학·공학	371권	9권	380권
산업·교통·통신	36권	0권	36권
미술	43권	4권	47권
국토	12권	0권	12권
잡지	20권	0권	20권
계	1,391권	35권	1,426권

그리고 현재 도서관 소장 도서는 22,500권이다. 1946년 구입한 서적은 수필 6권, 수양 1권, 철학 8권, 교육 1권, 심리학 1권, 종교 4권, 문학 50권, 외국문학 6권, 기타 소설 40권, 외국소설 50권, 국문학 17권, 어학 9권, 조선사 12권, 전기 7권, 지리기후 7권, 정치 16권, 경제 4권, 사회사상 18권, 가사 3권, 병사(兵事) 2권, 과학화학 11권, 수학 1권, 산업공학 6권, 희곡 3권, 고전 기타잡서 11권, 기타 4권 등 모두 310권이다. 마지막으로 동 관의 기구

를 보면 서무계와 사서계이고, 관원은 관장 이하 6인이다. 인천이 정신적 양식을 주는 도서관의 활약은 모두 앞으로의 문제로되 최성진 관장 이하 모든 관원이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공적을 우리는 높게 칭찬하자!!

3. 인천시립박물관

1945년 10월 30일 이경성 관장은 시장으로부터 향토관을 확장하여 박물관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 즉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인 소유 미술품의 접수, 기부, 권유(勸誘) 등을 통해 소장품을 확보하고 6개월 후인 4월 1일 봄 잔디가 푸릇푸릇한 박물관 정원에서 인천의 명사, 유지 다수의 참석 하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원래 거액의 경비가 필요한 박물관 사업의 만전을 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았다. 고로 서울 국립민족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후원을 받아 진열품의 충실을 기하고, 또 서울 독지가 장석구(張錫九)씨의 기부로 말미암아 사업도 차차 토대를 세우게 되었다. 이제 박물관의 걸음걸이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1일 개관식 거행
- 6월 25일 제1회 전인천 아동미술전 개최
- 7월 21일 가옥 대수선을 시작
- 9월 4일 국립민족박물관으로부터 진열품 75점을 차용함
- 9월 13일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진열품 19점을 차용함
- 10월 11일 가옥 수선 후 진열품 교체를 마치고 개관함
- 12월 장석구씨 현금 20만원과 미술품 20만원 기부

그리고 현재 소장 진열품 수는 305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시립박물관 소장 진열품 현황

구분	토제품	도자기	사기	석기	서화	목기	잡류	금속기	골류	골류
수량	47점	53점	33점	28점	19점	2점	96점	25점	1점	1점

박물관의 기구는 총무부, 연구실이고, 관원은 관장 이하 7인이다. 그리고 1946년도 관람 상황을 1946년 12월 30일 발행 인천공보에서 전재(轉載)하면 아래와 같다.

박물관 관람상황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인천 시민을 위하여 창설된 인천시립박물관은 상설 교화기관이다. 이제 지난 1946년의 관람상황을 회고하여 보니 관람 총인원 15,539명이라는 경이적 숫자이다. 이런 숫자는 조선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아도 인천 시민이 얼마나 유익하게 박물관을 이용하였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관람자 중 특히 미군이 많다는 것은 인천이 항도요, 조선의 관문이라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점만을 생각하더라도 인천박물관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우리 관원 일동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바이다. 최후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관람자의 관람상태이다. 박물관은 영리기관도 아니요, 또는 유원지 같은 오락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교화기관이다. 고로 관심과 성의 없는 만인(萬人)보다 연구적 태도를 갖는 1명을 환영한다.

표 8. 1946년도 시립박물관 관람 현황

구분	일반	미(美) 군인	단체	기타	합계
4월	3,755명	856명	1,958명	-	6,569명
5월	1,906명	623명	1,506명	-	4,035명
6월	760명	428명	183명	56명	1,427명
7월	928명	230명	275명	178명	1,611명
8월	123명	64명	-	-	187명
9월	휴관	휴관	휴관	휴관	0명
10월	414명	144명	936명	216명	1,710명
11월	315명	219명	440명	33명	1,007명
소계	8,201명	2,564명	5,298명	483명	16,546명

그리고 현재 박물관에는 박물관 사업을 지적, 물적으로 원조하려는 박물관 협의회(協議員會)가 있는데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고 문 : 현역시장

제1관구 경찰청장 박명제(朴明濟)

국립박물관장 김재원(金載元)

국립민족박물관장 송석하(宋錫夏)

- 회 장 :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李慶成)
- 협의원 : 조선고미술협회 감사 장석구
 국립중앙관상대 부대장 국채표(鞠採表)
 인천시립도서관장 최성진(崔星鎭)
 인천시립우리예술관장 이진영(李建永)

4. 교육

우민정책(愚民政策)으로 말미암아 지적 암흑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인민을 지적으로 향상시키고 동시에 조선 문화 발전에 참여시키려면 교육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교육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능력을 완전히 발전시켜 사회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양성시키는 작용을 가리킨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치고 그에게 목적을 제시하여 일정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주는 것도 교육의 효과이요,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요, 진선미에 대한 판단력을 주어 인생을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교육이다. 참으로 교육은 지상의 것을 천상의 것으로 화할 수 있고, 시간적인 것을 영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知)는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더구나 우리 조선 민족에게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로 해방 후 얼마나 이 땅에 배움의 불길이 왕성하게 불타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열거하겠다.

1) 학교교육

학교는 인간 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제도이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이다. 학교는 출세의 단계나 성공의 온상은 아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의 교습소가 아니고 인간을 완성시키는 분위기다. 지(智)와 애(愛)와 인격이 조화되어 종합적, 시간적으로 교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전체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 인천 시내 국민학교 현황

번호	학교명	교장	교직원	학생	비고
1	창영국민학교	조석기(趙碩基)	31명	2,124명	남녀공학
2	송림국민학교	이계영(李啓永)	25명	1,586명	"
3	서림국민학교	황기익(黃箕益)	32명	1,834명	"
4	송현국민학교	김시홍(金時弘)	27명	1,749명	"
5	대화(大和)국민학교	김동성(金鍊晟)	28명	1,580명	"
6	신흥국민학교	임선준(任宣準)	33명	2,047명	"
7	주안국민학교	유선예(柳先隸)	17명	1,074명	"
8	학익국민학교	고의언(高義堰)	13명	847명	"
9	문학국민학교	최문재(崔文載)	9명	602명	"
10	만수국민학교	한희룡(韓熙隆)	11명	756명	"
11	부평동국민학교	정성모(鄭聖謨)	33명	2,009명	"
12	논현국민학교	이용판(李用阪)	11명	679명	"
13	계동국민학교	이경호(李敬鎬)	11명	736명	"
14	서곶국민학교	변상봉(卞相鳳)	11명	738명	"
15	부평서국민학교	정성모(鄭聖謨)	7명	441명	"
16	석남국민학교	박제두(朴濟斗)	3명	201명	"
17	축현국민학교	이환구(李煥求)	21명	1,193명	"
18	박문학교	임종국(林鐘國)	8명	489명	사립 여학교
19	영화학교 남자부	임광익(林光益)	7명	422명	사립 남학교
20	영화학교 여자부	유홍수(柳洪秀)	7명	461명	사립 여학교
21	동명학교	박창례(朴昌禮)	9명	613명	사립 남녀공학
합계			354명	22,181명	

표 10. 인천 시내 중등학교 현황

번호	학교명	교장	교직원	학생	비고
1	인천중학교 (남)	길영희(吉瑛羲)	15명	463명	1945.11.27. 시립도서관에서 개교 1946. 8.14. 현 교사로 이전
2	동산중학교 (남)	구백서(具百書)	13명	403명	종래의 상업전수학교 승격 후, 1946.10.19~20. 승격기념식 거행
3	영화중학교	임광식(林光植)	8명	109명	1946.11. 5. 정식인가 개교
4	해성(海星)중학교 (남)	심상원(沈相元)	13명	641명 (야간 53명)	1946. 2. 5. 도서관에서 개교 1946. 3. 5. 현 교사로 이전
5	인천공업학교 (남)	조병곤(趙炳琨)	33명	578명	1946. 2. 1. 개교
6	인천여자중학교 (여)	조경래(趙慶來)	17명	510명	1945.10.26. 개교 1946. 5.11. 누전으로 교사 전소
7	박문여자중학교	임영길(林英吉)	12명	251명	1945.10. 9. 부평에서 개교 현재 구 곡물협회를 임시 교사로 사용
8	인천여자상업학교 (여)	정신(鄭紳)	10명	180명	1946. 4.12. 개교
합계			121명	3,135명	

표 11. 인천 시내 대학, 전문학교 현황

번호	학교명	교장	교직원	학생	비고
1	국립해양대학	이기복(李基馥)	15명	122명	1946.12.20. 제1회 입학식 1947. 2. 1. 개교 예정
2	영화전문학원	최기환(崔其煥)	18명	200명	1946.12. 2. 개교
합계			33명	322명	

2) 사회교육

광의의 사회교육이라 함은 예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각 문화단체에서의 행사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시민에게 제공되는 초보적 지적 교육에 국한한다. 인천성인교육협회는 성인층 문맹을 없애고 문화국가 국민으로서의 교양을 흥유(興有)토록 탄생된 것이 이 협회이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현역 시장
- 부 회 장 : 김영섭(金永燮), 안원생(安原生)
- 이 사 : 길영희(吉瑛羲), 조석기(趙碩基), 하상훈(河相勳), 임종국(林鐘國),
국채표(鞠採表), 신태범(愼兌範), 조희순(曹喜淳), 이병균(李秉均),
이동오(李東杓), 이경우(李慶雨), 박영욱(朴泳郁), 곽상훈(郭尙勳),
김용규(金容圭), 황광수(黃光秀)
- 총무부장 : 황기익(黃箕益)
- 사업부장 : 이경우(李慶雨)

인천성인교육협회가 주최하는 강습은 각 동회에서 실시하는 한글강습회와 각 공장에서 개최하는 역사강좌가 있다.

이상 인천 학계의 전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인천의 학계가 인문과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문화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발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특히 이 분야의 진흥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금일에 있어 재미없는 현상이다. 과학 조선의 건설이야말로 국가 백년의 대계를 수립하고 조선을 독립국가로 또 조선민족을 문화민족으로 지양(止揚)시키기 위하여 가장 긴급하고도 절실한 요청이다. 인천에도 과학교육을 위한 각 반(般)의 개설과 과학박물관, 천문관,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의 설치, 각 학교의 과학실 설비가 완비되어 시민을 과학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IV. 언론출판계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출판의 발전은 없고, 문화의 발전도 없다. 언론이 인간 자연의 최대 속성인 까닭에 언론의 자유는 인간성의 발전 및 문화의 향상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출판이라는 문화적 방법은 직접적으로 사상을 전달하고 민중을 계몽시켜 인류의 사상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언론과 출판은 근대 국가의 중추 신경적 존재로 문화 발전과 정비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언론 출판계를 언론과 출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언론

저널리즘의 본질이 공정한 입장과 비판적 태도로 대중에게 정확한 보도를 하여 문화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뉴스(News) 전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예민하게 시대 의식을 감각하고 가장 속히 세계 뉴스를 탐지한 뒤 이를 이성적 판단과 지성적 해부로 대중에게 제시하여 대중의 생활을 지도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널리스트는 사회인의 지도자이다. 현재 인천에 본사를 둔 신문사는 대중일보사, 인천신문사가 있다. 이 양사(兩社)는 여러 가지 곤란, 즉 재정난, 물질난, 인물난을 극복하여 꾸준한 노력으로 시민에게 간단(間斷)없는 뉴스를 전달하고 지도하여 왔다. 다음에 간단하게 인천에 있는 각 신문사, 통신사를 열거한다.

- 대중일보사 사장 조희순(曹喜淳), 편집국장 고일(高逸), 1945년 10월 17일 창간
- 인천신문사 사장 김홍식(金弘植), 편집국장 엄흥섭(嚴興燮), 1946년 3월 1일 창간
- 합동통신 인천지사 지사장 이순근(李順根)
- 조선통신 인천지사 지사장 최중량(崔重亮)
- 공립통신 인천지사 지사장 조우식(趙宇植)
- 전보통신 인천지사 지사장 이갑오(李甲昨)
- 해방통신 인천지사 지사장 황주흥(黃周興)
- 동아일보사 인천지국 지국장 곽상훈(郭尙勳)
- 조선일보사 인천지국 지국장 김종순(金鐘淳)
- 한성일보사 인천지사 지사장 최상린(崔詳麟)
- 민주일보사 인천지사 지사장 맹면(孟冕)
- 서울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박용하(朴容夏)
- 독립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임선장(林善璋)
- 경향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임종국(林鐘國)
- 대동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최철(崔鐵)
- 예술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최철(崔鐵)
- 자유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김권일(金權日)
- 공업신문사 인천지국 지국장 방도범(方道範)
- 중외신보사 인천지국 지국장 김동호(金東浩)

그리하여 인천의 언론계는 현재 인천 신문기자단과 인천 신문기자협회로 분리되어 인천시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사회복리 촉진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출판

출판은 활자를 통하여 근대인에게 정신적 양식을 주는 방법으로 인류문화의 최첨단(最尖端)을 가는 것이다. 근대인은 활자를 통하여 2천 년 전 철인(哲人)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만리타향의 문화인과 교류할 수 있다. 인쇄술은 인류문화 역사상 석기시대의 불의 사용, 토기 발명, 철의 발전 등과 아울러 특기할 사실이다. 인쇄술은 인류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인천의 출판계는 서울에다 비할 적에 너무나 적적(寂寂)하다. 단 하나의 잡지도 발행치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나? 작년 인천서 출판된 서적은 인천 목동사(牧童社)에서 발행한 『세계가곡집』이 있고, 동인지(同人誌)로서는 전진동인회(前進同人會)가 발행한 『전진(前進)』 1~6집, 『방사선(放射線)』 1집, 주간지 『어린이』 1~4집과 시와 산문 동인회에서 발간한 『시와 산문』 1~4집이 있다. 결국 인천 출판계는 타지방에 비하여 너무나 비활동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용지 부족이라는 치명적 사실도 있지만, 결론으로서 인천의 문화인의 성의가 이 방면으로 진전하지 않았다는데 요점이 있다. 듣건대 인천에는 『문학동맹 기관지』와 『해조(海潮)』가 정식 인가를 받았다 하니 이러한 잡지가 출현치 아니함은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V. 결론

향토 인천은 서울에 비하여 문화도시는 못된다. 향토 인천은 평양이나 경주나 부여에 비하여 고적도시는 못된다. 그러나 향토 인천에는 서울에 없는 예술관이 있고, 국립중앙기상대가 있지 않은가? 향토 인천은 일찍이 『동국여지승람』에 기록하되 “仁川都護府. (중략) 云彌鄒忽. 新羅景德王, 改郞城, 爲栗津郡陰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肅宗朝以仁叡王后李氏之鄉, 陞慶源郡. 仁宗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 改知仁州事.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中略) 本朝, 太祖元年, 復爲仁州. 太宗十三年, 改今名例爲郡. 世祖六年, 以昭憲王后外鄉, 階爲都護府. 『官員』府使教授各一人. 『郡名』彌鄒忽, 鄒一作趨. 買召忽, 郞城, 慶源, 仁州.”라고 또 역사상 저명한 인물이 많이 인천에서 출생하지 않았는가? 즉 고려조의 이자연(李子淵), 인예·순덕왕후 이씨, 대각국사 의천, 이정(李頌), 이자겸(李資謙), 소헌왕후 등...

향토 인천은 이제 탄생되었다. 향토 인천의 문화는 건설 도중에 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당신은 1946년에 인천을 위하여, 인천문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은 향토 인천을 진

정으로 사랑하는가? 누가 향토 인권을 참으로 사랑하고 향토 인천문화 건설에 봉사하였는가?
누구보다도 당신이 제일 잘 아는 일일 것이다.

古蹟

開館一週年紀念號

目次

開館後一年-----	李慶成 (館長)-----	(1)
考古學之基礎概念-----	“-----	(2)
朝鮮地質系統概說-----	林淳弘 (仁中教授)-----	(5)
仁川博物館要覽及業務狀況-----	“-----	(9)
1. 沿革-----	“-----	(9)
2. 施設-----	“-----	(9)
3. 陳列品一斑-----	“-----	(9)
4. 業務係業務報告-----	“-----	(9)
5. 研究室報告-----	“-----	(10)
博物館及學界消息-----	“-----	(11)
1. 姊妹博物館-----	“-----	(11)
A. 國立博物館-----	“-----	(11)
4層本館-----	“-----	(11)
慶州分館-----	“-----	(11)
扶余 “-----	“-----	(11)
公州 “-----	“-----	(11)
開城 “-----	“-----	(11)
大邱 “-----	“-----	(11)
B. 國立民族博物館-----	“-----	(11)
C. 旧王宮美術館-----	“-----	(11)
2. 學界消息-----	“-----	(11)
(外) 朝鮮近代文化研究所-----	“-----	(11)
編輯後記-----	崔錫在-----	(11)
裝紙後記-----	“-----	(11)

多載

厚下

고적(古蹟)

제2호

개관 1주년 기념호

목 차

개관 후 1년	이경성(관장)
고고학의 기초 개념	이경성(관장)
조선지질계통(朝鮮地質系統) 개설	임순홍(인중교사)
인천박물관 요람(要覽) 및 사무상황	
박물관 및 학계소식	
편집후기	최석재
표지구성	최석재

1947년 4월

인천시립박물관보(仁川市立博物館報)

개관 후 1년

이 경 성

1947년 4월 1일은 인천박물관이 창설된 지 만 1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본 박물관 창립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다. 내가 인천박물관을 건설하려고 결심하고 문자 그대로 묵묵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5년 10월 30일이다. 이날 상오 인천부청에서 박물관장의 발령을 받고 발령장을 주머니에다 구겨 넣은 채 당시 일본인 세화회(世話會)의 회장이었던 고타니 마쓰지로[小谷益次郎]를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박물관 설치를 설명하고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기부하라고 말했더니 그는 쾌히 승낙하고 자기 소유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 외에 누마나미[沼波], 모리[森], 카와노[河野], 리키다케[力武] 등에게도 통지하리라고 약속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들 일본인들은 매각, 혹은 은닉하여 진열할 만한 좋은 미술품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한편, 시장에 나온 물건을 사러 돌아다녔다. 신영사(新榮社)에 맡겨놓은 스즈키[鈴木]의 고려자기 약 20점을 매득한 것은 큰 성과였다. 또 이것을 기회로 스즈키가 은닉한 물건을 접수하기 위해 감시선을 빌려 타고 작약도로 달려가고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영종도로 건너가 약 25상자(자기 약 200여 점)를 어느 민가에서 발견하여 접수해 온 것은 실로 통쾌한 일이었다. 또 부평조병창에 있는 철제, 청동제의 물건을 미군의 특별한 후의로 수집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일본인이 중국에서 강제로 공출시켜 탈취한 물건으로 소위 장개석(蔣介石)씨의 성명(聲明)한 바 중국의 미술품들이다. 이러한 생활을 약 6개월 동안 계속하였다.

경험이 필요한 박물관 근무의 확립, 진열법, 또 설명문의 영어번역, 황폐한 건물의 대수선, 진열실의 대수선 같은 일이 산더미같이 닦쳐오는데 부청에서는 정원이 없으니 사무원 1명, 순시(巡視) 1명, 소사(小使) 1명, 급사(給仕) 1명이라는 인원 이상을 허락지 않고, 또 경비(經費)도 5천원 이상은 지불 못한다고 하니 몹시나 입장이 곤란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박물관 건설비가 5천원이니 조선박물관 역사상 특필(特筆)할 사실이 아닐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한

경제난은 그다지 큰 문제가 못된다. 나를 괴롭히고 몇 번이나 차질(蹉跎)을 주었던 사실은 인천부민의 박물관에 대한 몰이해와 비협력적 태도였다. 이는 차라리 소극적임으로 그다지 문제 되지 않았으나 이에 반대하는 태도에는 여러 번 분개도 하고 그들의 몰상식을 공격도 하였다. 누가 자기 일신의 안락을 위하여 상술한 조건 아래서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박물관 건설에 진력해 왔는가? 누가 일신의 명예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가? 인천의 태생인 만큼 향토에는 타지방 사람보다 두터워 인천을 문화적으로 장식하려고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은 저절로 박물관이 하나 생긴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천에 박물관이 무엇에 쓸데가 있어? 서울 가면 있는 걸”하고 자신 있는 어투로 강조한다.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인간을 대상으로 할 적에 나는 분개보다 비애가 앞서 나오곤 하였다. 이들을 계몽시켜 박물관의 존재 이유와 그의 근본 성격을 이해시키는 것이 나의 소임이니 하고 항상 참아왔다. 그 후 군정청에서 인천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만들고자 교섭이 있어 국립민족박물관장 송석하씨의 인천 방문조사가 있었고 인천시장, 학무과장(學務課長), 적산관리국장(敵産管理局長)의 합의가 있어 직접 상경하여 교섭하였다. 그러나 국립민족박물관이 아직 개관 전이고, 또 경비 문제 등으로 시기 상조라 하여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리하여 1946년 4월 1일, 봄 잔디가 신생(新生)을 구가(謳歌)하려는 박물관 정원에서 관민(官民) 다수가 참석한 아래 성대한 개관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날을 장식한 것은 천사 같은 박문여중 합창대 여러분의 아름다운 합창이었다. 이러한 중에도 나의 양심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진열품의 내용이 너무 빈약했던 까닭이다. 일반인은 모르나 전문가가 보면 너무나 빈약함에 놀랄 것이고, 또 이러한 빈약한 내용을 전시한 것이 부민을 속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예술관 건설의 명을 받아 약 4개월 반을 걸려 8월 14일 개관식을 거행할 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박물관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예술관을 개관시키고 보니 이번에는 박물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옥은 파손되고, 진열품은 교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비가 극소하였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건물 수선의 재료는 전부 기부받고, 공사비만 염출(捻出)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정청에서 약 20만원 상당의 목재와 인천제정(仁川製釘)·조선강업(朝鮮鋼業)으로부터 약 8천원 분량의 정(釘;못)을 경성화학, 동아화학, 조선기계제작소에서는 2만원 상당의 도료 등 기

타 재료를 전부 기부받았다.

그리하여 공사비에 해당하는 약 6만 원만을 인천부의 예산에서 지불하였다. 다음 진열품은 국립박물관, 국립민족박물관에서 우수한 예술품을 대여받아 진열방법을 다소 바꾸어 교체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휴관기일이 40일, 그리하여 9월 22일 또다시 관민 다수를 초대하여 개관식을 거행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공석 중이었던 예술관장도 충원되어 겸직을 면하고 박물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겨울도 닥쳐오고 하여 박물관의 사업은 내부적인 연구로 옮기고 관원의 고고학적 소양을 위해 고고학 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인문과학의 보급을 위해 이를 매월 1회씩 공개로 개강하여 자못 큰 성과를 거둬주고 있다. 다음에 착수한 것이 인천향토사의 편찬이다. 이 준비로 문헌수집, 고적조사 등을 현재 행하고 있다. 또 조선 박물관의 고고학 보급, 연구발표를 위하여 관보 『고적(古蹟)』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은 이제 겨우 한 살 먹은 유아(幼兒)다. 그 유아를 양육하는 것은 관원의 책임이지만 어디까지 유모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박물관은 인천부민이 8.15 이후 낳은 한 살 박이 유아다. 그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천부민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근일 박물관을 없애버리라는 의견을 모 문화인이 발언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이 들려 나의 마음을 몹시나 아프게 했는데 이 의견이 인천부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어느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또 현재 박물관 업적이 작지 않다는 것(관람객 수로 보아)도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성 있는 문화인은 박물관이 흥행적 기관도 아니요, 더구나 동절기에는 이용자가 급감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박물관 창설을 위해 부민 전부가 다소의 기부를 하여 약 150만원을 모았고, 기성회 유지가 서울 국립박물관에 와서 열성적으로 운동을 하였다고 하니 박물관을 없애라는 인천의 어느 문화인의 인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도대체 이러한 몰상식하고 불행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인천박물관의 책임을 구현하지 못했음을 느끼게 하고, 방법 등 여러 방면에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장차 소위 박물관의 업적을 넘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사람은 자태를 감추고 또 그때부터 조선의 고고학은 일반화되리라고 믿는다. 개관 후 1년의 기쁨 거리를 간간히 회상하여 깊은 감회로 일주년 기념을 맞이한다.

고고학의 기초 개념

이 경 성

I. 고고학의 개념

1. 고고학의 기원

본래 구주(歐洲)의 고고학은 고물학(古物學, Alterlums Kunde-antiquorianisum)으로서 근고(近古) 초두(初頭)에 인문주의의 발흥과 함께 고전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부수(附隨)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인문주의자들의 태도는 고대 유물을 단순히 수집하고 감상하고 그리고 진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 후 독일의 빈켈만(Winckelmann; 1717~1768)이 고대 기념물, 예술품을 집대성하여 체계화시킨 이래 19세기 이 방면의 신 자료(조각, 병 등)가 많이 발굴되고, 또 재래 고고학의 발달에 기여하던 언어학적 요소가 양식적 분석의 새로운 요구로 말미암아 물리감으로 독립된 고고학이 탄생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순수 예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순수예술 고고학’ 또는 ‘고전파 고고학’이라고 불리며 좁은 의미의 고고학을 대표하고 있다. 이 같은 인문주의 운동에 자극을 받아 중세 기독교의 비판에서 출발하여 초기 기독교 문화를 해명하려는 ‘기독교 고고학’이 탄생되어 19세기에 체계화되었다. 문헌, 구비전승 등이 존재치 않는 시대의 유물, 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을 ‘ 선사 고고학’이라 한다. 이것은 각종 특수 고고학이 고대를 탐구하기 위해,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중기까지 북유럽 및 중유럽 선주(先住) 민족의 거주 유적(동굴, 패총 등) 발견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 유물, 유적 연구 조사의 결과, 인류 문화는 석기시대(구, 신),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3단계의 순서로 발전한 것이 명백히 되어 인류 문화의 보편적인 발전단계가 기본적으로 실증되었다.

2. 고고학의 어의(語義)

고고학의 어원은 희랍어에서 출발하고, 영어의 ‘Archaeology’, 독일어의 ‘Archäologie’라는 단어로 사용되며, ‘고물(古物)의 학문’, ‘고대 연구의 학문’이라는 뜻이로되 이전에는 역사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3. 고고학의 정의

고고학은 물질적 유물로 즉 유적의 층위학적 연구(Stratigraphic method)와 유물의 형식학적 고찰(Typological method)을 통해 인류의 과거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즉, 고고학은 자연과학과 대립하는 인문과학의 연구법 중 문헌학적 방법처럼 다른 일반(一半)을 이루고 있는 방법이로되 물질적 유물을 그 자료로 하는 연구법 및 연구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일부 학자(Sir Isaac Newton; 1642~1727)는 상술한 고고학을 소고고학이라 한다. 그들은 고고학을 ① 구술(풍속, 습관, 구비전승), ② 문헌(문서, 문헌), ③ 기념물(유물, 유적)의 3종의 자료로 인류 일체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술적 방법은 민족학이고 문헌적 방법은 협의의 역사학이고, 기념물적 방법은 고고학이라고 현재 학계는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4. 고고학의 발전사

고고학의 발전은 결국 전술한 ‘빈켈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고전과 고고학’의 탄생과 ‘기독교 고고학’의 발흥이 구주(歐洲) 고고학의 출발점이다. 한편 이집트를 포함한 고대 동양의 문화와 그 기념물에 관한 연구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1798~1801)을 기회삼아 시작되었고, 특히 원정 때 발견된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에 새겨진 이집트 상형문자가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Champollion)의 손으로 번역된 이래 고대 동양문화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유럽 각국은 이집트로 원정대를 파견하여 대규모의 발굴을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페트리(Petrie) 교수가 행한 발굴 방법(Methods and Aims in Archaeology)은 고고학 연구법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역시 새로운 사실이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다.

특히 1922년 이집트 테베(Thebe)에서 발굴된 이집트 왕 투탄카멘(B.C. 1350)의 분묘는 가장 유명한 것이다. 바빌론(Babylon), 앗시리아(Assyria), 페르시아(Persia) 지역 여러 도서의 고대 문화도 발굴로 말미암아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20세기 초기 투르크스탄(Turkyestan) 안노(Anau)의 발굴과¹⁾ 최근 이라크 남방의 우르 발굴은²⁾ 고대 동양의 최고 문명

1) Pumpelly, 『Independent Evolution of oases and Civilisation』, 1906(편집자註).

2) Charles Leonard Walley, 『Digging up the part, Ur of the Chaldees』(편집자註).

을 밝히는 동시에 원시 중국문화, 중앙아시아 고대문화와의 관계를 암시한 점에 있어 고대사 연구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동양의 고대문화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특수한 지역에 따라 이집트학(Egyptology), 앗시리아학(Assyriology) 등의 학문이 발생되고 있고, 일반에는 ‘고대 동양고고학’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선사 고고학을 종래의 특수 고고학부터 적극적으로 해방시켜 새로이 과학적으로 확립시킨 이가 독일의 학자 ‘빈켈만’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 후 덴마크의 톰센(Thomsen)과 보르사예(Worsaae)가 종래의 고고학이 미술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불만을 가져 새로이 유사(有史) 이전의 것을 인류학과 관련시켜 연구하고 최후로 독일의 쉘리만(Schliemann; 1822~1890)이 고전 고고학과 유사 이전의 고고학을 통일시켰다. 그와 함께 그 후 발굴유물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형식학(Typology)과 그것으로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학(Chronology), 또는 편년학이 스웨덴의 몬텔리우스(Montelius; 1843~1921)로 말미암아 인정된 이래 고고학은 비로소 과학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선사 고고학으로서 단순히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그 대상을 구하고 그 기본 형식에 따라 그의 특수 내용을 가진 중국 고고학, 미국 고고학, 만주, 인도, 시베리아, 일본 등의 고고학이 성립되었다.

중국 고고학은 남송 이후 금석 고기(古器)의 감상에서 출발하여 청(淸)에 이르러 고증의 풍습이 있었으나 1920년 이래 스웨덴의 안테르손(Andersson; 1874~1960)³⁾으로 말미암아 하남성 기타(其他)에서 구석기 시대의 인골 및 석기류가 발견된 이래 일약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이 고고학 역사상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고고학은 주로 원주민인 인디언 및 북방의 에스키모인에 대하여 연구 성과를 거듭하고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고고학은 서아시아의 고대문화와의 관련에 있어서 발굴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베리아 고고학도 근래 발달 도상에 있고, 만주, 몽골 고고학도 최근 일본 학자의 손으로 진척되었다. 조선 고고학은 중국 고고학을 수입하여 금석문, 고기(古器) 등을 고증하는 풍습이 있었다. 김정희(金正喜) 등의 학자는 그 선구자이다. 그러나 소위 과학적 고고학은 역시 일본인 학자, 즉 후지타(藤田), 세키노(關野), 우메하라(梅原) 등의 힘으로 연구되었으니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3) 당시 그의 업적은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vol 8, stockholm 1929-1936에 실려 있다(편집자 註).

II. 고고학의 범위와 목적

고고학의 범위는 정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물질적 유물, 즉 유적과 유물에 한정된다. 그러면 물질적 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체의 공간적 연장(延長)을 가진 인류의 의식적 가공품 외에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남긴 각종 증거를 포함한다. 또 유적이라는 것은 시가(市街), 거주 유적, 분묘 등을 가리키고, 협의의 유물이라 함은 토기, 무기 등 형태가 작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적과 유물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개념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목적도 인류의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에 한정된다.

1. 인류 과거의 범위

고고학에서 말하는 인류 과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가 하면 프랑스 고고학자 자크 모르강(J.D. Morgan; 1857~1924)의 말과 같이 현재 이전 일체의 과거, 즉 인류가 출현한 이후를 포함하여도 좋지만, 고고학은 문헌이 전혀 없는 또는 문헌이 희소한 고대, 즉 각국 역사에 있어 대략 고대사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를 주로 연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고고학의 구분

고고학의 시대적 구분은 인류가 제조한 도구의 재료로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같이 인류 문화의 발전을 도구의 재료로 분류한 것은 덴마크의 고고학자 톰센과 보르사에 등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학자로 이를 따랐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석기시대 :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 금석병용기(金石並用期)
- 금속기시대 :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리고 북유럽의 학자는 석기, 청동기, 철기의 3시기로 분류하여 3분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각국, 각 민족에 있어 항상 차례대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어느 시대가 누락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역사 방면에서 관찰하면 유사 이전을 선사시대라 부르고(선사 고고학), 역사시대의 초기를 원사(原史)시대(원사 고고학), 그 다음을 역사시대(역사 고고학)라 한다. 즉 선사 고고학은 물질적 유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시대(석기시대, 청동기

시대)를 말한다. 원사 고고학이라 함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와의 중간 시대를 주로 연구하는 고고학이고, 역사고고학은 문헌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이다.

A. 고고학의 지리적, 민족적, 종교적 구분

고고학을 지리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구분하면 서양 고고학, 동양 고고학으로, 또 중국 고고학, 조선 고고학, 영국 고고학, 미국 고고학, 프랑스 고고학으로, 그리고 기독교 고고학, 불교 고고학, 회회교(回回教) 고고학으로 나눌 수 있다.

B. 자료의 종류에 의한 구분

고전학(古錢學) : 고전(古錢)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미술고고학 :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금석학 : 금석문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C. 고고학의 목적

고고학의 목적은 역사와 같이 인류 과거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관계를 인식하여 다가올 신시대에 대해 인류가 수행하려는 사회적 역할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고고학은 고정된 내용을 갖는 과학이라기보다 도리어 물질적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고로 이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떤 방면이라도 가능하다. 미술사학자는 미술의 양식, 제작의 방법 등을 연구하고, 종교사학자는 종교적 관념, 의례의 변천 등을 연구하며, 기타 사회학자, 문명사가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자들이 각각 이 방법을 통해 그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

Ⅲ. 조선 고고학

조선 고고학은 조선 내에 있는 인류의 유물로서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일찍이 청 왕조의 고증학풍을 따라 영조 때의 김재로(金在魯), 정조 때의 김정희(金正喜)와 홍양호(洪良浩), 순조 재위기의 서유구(徐有榘) 같은 학자의 금

석문 조사 업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학술적, 비과학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본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들 학자의 손으로 조선 고고학이 시작되었다. 즉 대한제국 시기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황실의 위촉으로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이래, 일본인 학자들이 자기 본토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 즉 왕릉 발굴 같은 실험을 경주와 부여, 강서 등의 지방에서 행하여 자못 큰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고로 당시 고고학계에서는 단 한 명의 조선 사람도 인정하지 않은 까닭에 지금과 같은 고고학계의 부진 상태가 생겨난 것이다.

조선 고고학의 범위는 조선 땅의 인류가 출현한 때로부터 고문서, 고기록이 완비되지 않았던 삼국시대까지를 포함한다. 그 유적, 유물도 석기를 비롯하여 금속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아직까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방 후 남조선에는 여덟 개의 박물관이 있고, 그 중 세 개는 신설(서울 국립민족박물관, 인천박물관,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이라는 현상은 조선 고고학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매우 기뻐할 만한 현상이다. 조선 고고학의 발전, 그것은 소수 조선 고고학자들의 노력 여하에 있다.

〈일반 참고문헌〉

1. W.Flinders.Petrie, 「Methods and Aims in Archaeology」, London, 1905.
2. J.De.morgan, 「Les Rechêrches Archeologiques leur Butr et lear Procêdes」, Paris, 1906
3. W.Deonna, 「L.Archeslogie sa volour Ses Methodes」, Paris, 1912
4. O.Montelius, 「Die Altien Kuiturperioden in Europe」, Stockholm, 1903
5. F.Koepp, 「Archaologie Sammlung Goes Chen」, 1911
6. H.Bull, 「Harid Buchder Archaologie」, München, 1913
7. D.G.Hogurth, 「Aothority and Archaeology」, London, 1899
8. Lord Avebary, 「Prehistoric Times」, London, 1913

第 3 號

1947.9

古蹟



仁川博物館發行

고적(古蹟)

제3호

목 차

인류학의 과제	Frang Boas, 김성대(金聲大) 역
'박물관학' 수립에 관한 시론	이경성
인천박물관 사무상황	
편집후기	C生
표지구성	최석재

1947년 9월

인천박물관 발행

‘박물관학’ 수립에 관한 시론(試論)

이 경 성

제1장 서론

‘박물관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학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국제문화연맹(I.I.C.I)이 잡지 『MUSEUM』 간행에 착수한 1926년 이래에 속한다. 더구나 193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만국 박물관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각지 박물관으로부터 대표자가 다수 참가하여 박물관에 관한 제 문제를 연구 토의하였는데, 이 회의는 전기(前記) 잡지 『MUSEUM』이 착수한 박물관 연구를 체계화시키려는 것으로 박물관이 문화인에 새로운 연구제목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물관학은 하나의 완성된 과학이라기보다 발전 도상에 있는 신학문으로서 많은 연구 분야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박물관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조선 사람에게 박물관은 전혀 새로운 명칭이고 신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박물관이라는 것은 큰 건물에 귀중한 미술품이나 진기한 물건을 만연(漫然)하게 보관하고 진열하는 것이 그의 사명처럼 해석되어 왔다. 물론 박물관 본질의 일부로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즉 박물관이 민족문화 연구의 최대 기관이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을 연구 발표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이다. 이제 박물관 인식을 돕기 위하여 이를 정의적으로 말하자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천연적 및 인공적 유물을 수집, 보존, 진열하여 일반에게 관람, 연구케 하는 동시에 박물관 자체도 이들을 연구, 발표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다시 말하자면 박물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졌으니 교화(敎化)와 연구가 그것이다. 종래의 인식에 의하면 박물관의 교육적 사명은 어느 정도 알려진 바 있으나 박물관의 활용이라든지 사람 간의 관련성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더구나 보관이나 진열에도 여러 가지 방식과 법칙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 박물관이 취급하고 있는 대상이 과학적이고, 박물관 운영방법이 하나의 과학인 이상 과학적으로 이를 해명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유사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있어야 할 과정이라고 믿는 나머지 감히 미개척 분야인 박물관학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완전한 박물관학의 저술이 출판되고 또 박

박물관의 인식이 모든 문화인에게 파악된다면 본인의 목적은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제2장 박물관의 사적(史的) 변천

박물관은 어원적으로 불 적에 미술, 과학을 지배하는 여신 중의 하나 'MUSE'를 모신 신전(神殿)으로서 원래는 'Shrine of the Muses'를 의미했던 것이다. 고로 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박물관의 기원은 희랍(希臘)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또 문헌상으로 보아도 아테네의 신전에는 대개 하나 이상의 회화 진열실이 있었다고 한다(B.C. 5세기). 또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히포드롬(Hippodrome)에 전리품 및 기타 타국의 진귀품(珍貴品)을 전시하였다고 한다(A.D. 5세기). 중세에 이르러 왕후, 귀족, 부호 또는 가톨릭 성당 소장의 보물을 한군데 모아 보관하여 두는 장소가 생겼다. 중세의 말기에서 문예부흥기에 이르기까지 전기(前記) 보물은 그 수가 증가되었고, 수집되는 고미술품도 증가되어 그의 보관 분류 등의 방법에 있어 박물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당초는 여전히 왕후들의 개인 소유에 속하였었다.

표 1. 중세 유럽의 박물관

국가	도시	박물관	연대	비고
이탈리아 ITALY	로마	로마 바티칸 박물관	1471년	
	피렌체	오후이쓰 회랑	1537~1574년	우피치 미술관
	모머나	에스댄스 회화랑	1504~1545년	
프랑스 FRANCE	파리	가비네두 다부로	1515~1545년	
영국 GREAT BRITAIN	런던	런던탑	1558~1589년	
독일 GERMANY		도레스덴 회화랑	1553~1589년	드레스덴 미술관
	뮌헨	매탈진열관	1571~	

결국 이태리 중세의 시장, 중세의 성당 보전(寶殿) 등은 박물관의 모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이들 왕후의 수집품이 국민에게 이양되고, 또 개인 기증의 수집품도 점차로 포함되어 비로소 회화 및 고미술품은 일반 인민의 관람에 제공되었던 것이다.

표 2. 18세기 유럽의 박물관

국가	도시	박물관	연대	비고
영국	옥스퍼드	아쉬모레안 박물관	1683년	애쉬몰리언 뮤지엄
	런던	브릿잇슈 박물관	1753년	브리티시 뮤지엄
프랑스	파리	룩산볼크 미술관	1750년	피에르 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빈	벨베델 박물관		벨베데레 갤러리

18세기 말부터 각국은 박물관을 공공적 조직체로 만들어 수다(數多)한 사유 수집품이 점점 공유화되었다. 박물관이 현재와 같은 인민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까지 이상과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생각전대 상고(上古), 중세는 모든 문화가 일부 강권자, 부호를 위한 문화인만큼 박물관도 강권자, 부호 소장 보물의 관리 내지 전시를 위한 존재였었다. 그러나 문화 발전에 따라 박물관도 그 존재 이유를 달리하게 되었다. 즉 박물관은 민족 문화의 정당한 계승과 민족 문화 자산의 보존이라는 국가적, 인민적 의의를 갖게 된 것이다. 유럽의 박물관은 18세기 후반부터 점차 정부에 이양되어 인민에게 개방되고 19세기 후반 이후 경제의 발달, 교육의 보급에 따라 그 수가 증가되었다. 역사박물관은 19세기 특히 1830년대 민족의식의 발흥과 아울러 창립을 보게 되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 같은 특별한 대 사변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유럽 이외의 땅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교육에 제공하기 위해 역사박물관이 발달하여 해마다 증가되었다.

1850년 이후 과학과 공업의 진보는 과학박물관(박물관학, 민족학, 인류학), 공업박물관 및 기술박물관 등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제3장 박물관의 조직

박물관 조직의 초기적 형성은 수집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 부호 등의 한정된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일부 또는 미술품 진열실 혹은 창고 등을 전람시킨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미술품은 전부 개인 소유품이고 그 감상에 거액의 입장료 및 소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람자는 소유자의 지인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대 수집품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존 및 진열 시설 등에 다대(多大)한 경비가 필요하다. 다음에 생긴 형식은 여러 가지 수집가가 모여 그 수집품의 보관 진열에 취하여 사람을 발굴하여 이 사람에게 전 수집품을 위탁

하는 것이다.

다음의 조직은 협회 조직이로되 미술 수집가, 미술 연구가, 미술 애호가 등이 많이 모여 협회를 조직하고 상호 출자에 의해 박물관을 만들고 공사와 운영 관리의 책임을 관장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다른 사람은 회원 또는 위원이 되어 여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 박물관의 발달은 특히 이 협력조직에 의한 바 크다. 이것은 박물관 사업이 다른 공공사업과 같이 한 사람의 귀족 또는 부호 등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계 몽상의 적극적인 사업인 것을 사회인이 명백히 이해하고 다수인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시키게 된 것이다. 이 조직에서는 회비 징수가 유일한 재원이 아니며 회원 중에 기부 행위를 하는 자도 있어 경비의 조달은 적당한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충당하고 또 수집가는 오로지 그 수집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회원 중 미술 연구가가 있어 연구 사업의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상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생성한 박물관 조직이지만, 이와 다른 방법으로 생긴 박물관이 있다. 시립박물관, 도립박물관, 국립박물관 등이 즉 이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 시청, 도청 등이 박물관의 건립자가 되어 그 비용으로 미술품의 수집, 기탁, 잡비 등을 충당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도 대개 개인의 기부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지방 관청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형식도 구미(歐美)에는 많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수집 편성의 불비(不備), 경비 부족이 적지 않다. 고로 시립박물관, 국립박물관이라 할지라도 정부, 시청의 관리만으로 경영하기 곤란하기에 부호, 학자 등을 초빙하여 위원으로 삼아 그 협력을 바라는 것이다.

특히 수집 편성은 곤란한 일로서 일정한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 곤란이 더 막심하다. 대개 사무 관리원은 동시에 학자가 되기 어려운 까닭에 연구 상 특히 학자에게 촉탁하는 일이 많다. 현재 박물관의 의의는 변천되었다. 이것은 진열품의 해석이 변천된 까닭이다. 원래 진열품은 개인적 감상의 자료였던 것이 이제는 다른 문화와 같이 국민 또는 민족의 정신적 문화의 정수(精髓)로서 문화 계몽, 과학 발전의 교화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종래 미술품을 진열하고 애호자의 감상에 제공되었던 박물관은 이제야 전혀 다른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어 미술품의 보관,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공개연구 작성 등 각 방면에 걸친 노력을 거듭하여 민족 문화의 보전(保傳), 발달에 공헌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사회의 적극적 사업으로 인정되고, 이것을 성취하려고 사회인은 협력하여 이것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또 국가사업으로서도 중대한 것이므로 정부도 자발적으로 박물관을 시설하게끔 되었다.

제4장 박물관의 건축

제1절 위치

박물관을 건축할 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건축할 위치이다. 물론 이미 건축된 건물을 사용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신축할 때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미(歐美)의 선례를 보면 위치로서는 상업구역도 아니요, 주택구역도 아닌 비교적 시가의 중심지인 공원 안에 둔다. 이것은 공원 내에 두면 일면 근접한 건축물로부터 화재가 옮겨 붙을 위험이 없고, 일면 수목초화가 있는 정원에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박물관에 들어가 감상할 수 있는 까닭이다. 또 국가 도시의 성격 상 박물관은 그 국민 생활 또는 도시 생활의 문화적 방면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을 공원 내에 둔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에 유의할 것은 박물관 부지의 역사적 관계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적 관계로서 그곳이 적당하게 될 수도 있다. 박물관은 귀중품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물품을 소장하고 있는 까닭에 우연적 재난을 극력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박물관의 위치에는 풍토적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습기 있는 곳을 피할 것 등이다.

제2절 양식

박물관의 건축 양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고전주의가 세력을 떨치던 19세기 전반에는 고대풍의 건축물이 박물관의 위엄을 보이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공업 발달의 영향을 받아 박물관의 건축 양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1850년은 실로 철의 비약 시대로서 금속을 사용한 건축은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철을 재료로 한다면 마음대로 큰 공간을 취할 수가 있다. 고로 박물관도 이것을 이용하여 커다란 “홀(Hall)”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박물관을 위한 건축이 성행되는 한편, 역사적 건축물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19세기에 성행하였다. 19세기 말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공업 융성

시대 및 특권계급의 번영 시대는 호화찬란한 박물관, 특히 화려한 현관의 구조와 장중한 대계단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근대의 정신은 간소(簡素)와 명쾌(明快)를 존중한 까닭에 이 같은 화려한 장식에 대한 반동(反動)이 20세기 초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진열품의 보관 및 진열이라는 박물관에 대한 모든 현대적 기술이 경주(傾注)되고 있다. 그리하여 종래의택전(宅殿) 양식은 전혀 일소되고 추상적 양식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박물관 건축 양식 상에 근본적 요구는 내부에 진열된 진열품과 조화할 수 있는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3절 설계

박물관의 설계는 그 내용이 되는 진열품의 다소(多少)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진열실의 좁고 넓음 이외에 만약 박물관에 보관품이 많을 때는 창고도 진열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 외 사무실, 진열품 하역실, 수선실, 사진실, 관원 식당, 면회실 등 업무용의 공간이 필요하다. 또 도서실, 강연실, 관람자 식당도 필요하다. 박물관의 연구, 교육 등의 방면을 생각지 않은 옛 사람은 단지 진열품을 일반에게 관람시키면 족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박물관이 인민을 권도(勸導)하는 교화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진열실 밖의 사업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개 구미의 박물관은 이들 사무실 및 창고를 지하실에 두었다. 물론 지하실이라 해도 1층의 마루는 지상에서 높이가 2~3m에 달하니까 지하실은 지하실이 아니고 충분한 광선을 취할 수 있고 또 습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예. 덕수궁미술관)

그리고 만약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진열관이 아닌 별관인 것이 좋다. (예. 국립박물관) 이것은 사무원의 부주의 또는 우연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열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진열관은 대개 2층 건축이다. 2층은 반드시 회화실로 하되 천정 광선을 취할 설비를 하고, 1층은 조각, 공예품실로 하되 창 광선을 취한다. 현관 즉 계단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접수 장소는 면적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입장권 발매, 소지품 보관소, 도록 및 사진 판매, 관내 진열 안내도 게시 또는 특별진열 게시 등을 하는 곳이다. 현관에서 진열관 내로 들어서는 정면에 넓은 방을 하나 두고 그 좌우 또는 전면으로도 진열장을 계속 배치해서 순차 관람하게 해야 한다. 이 중앙의 넓은 방에는 대표적 진열품을 진열한다. 이것은 입장 시에 미술적, 심미적 감정을 발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박물관의 설계는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주회(周回) 평면도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中心) 평면도이다. 전자는 중정을 둘러싼 외곽(外郭)이 되어 중앙에서 한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박물관을 일주해서 다시 입구로 돌아오게 된다. 후자는 입구에 배치된 중앙의 넓은 방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한쪽 날개로 뻗어나가 중앙으로 돌아오고, 다시 다른 쪽으로 향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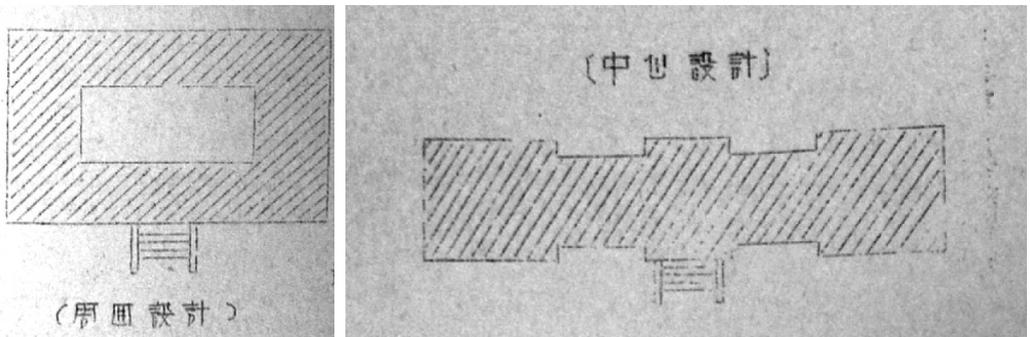


그림 1. 주회(周回) 설계와 중심(中心) 설계

제4절 진열실의 설비

진열관은 불을 가장 무서워한다. 고로 타기 쉬운 재료는 피해야 한다. 관내에서는 금연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관내에 배선한 전선의 누전도 화재의 원인이 된다. 진열실에는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개의 비상구를 설치하여 유사시 진열품을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도관 역시 다수의 장소에 설치하고 수관(水管)을 준비해야 한다. 자동 소화기는 벽 아래에 두되 수연전(水蓮銚)과 같이 표시하여 알기 쉽게 하고 직원은 물론 관람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또 관내 여러 곳에 전화를 장치하여 비단 화재의 보고에 사용할 뿐 아니라 도난이 있을 적에도 본부 혹은 순시찰(巡視察)에게 알려 수위가 폐문(閉門)하도록 한다.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위치의 선택으로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상록수를 심어 인화(引火)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난을 방지하기에는 앞서 말한 전화 설비가 유효하다. 진열품을 노출시켜 도난을 초래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방법 설비는 왕왕 관람자의 감정을 손상시킨다.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마시오.” 등은 이런 폐단이 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설비를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얇은 창에는 철망을 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에는 청소 설비가 있다. 청소의 곤란은 박물관의 환경이 방화, 방법으로 말미암아 폐쇄적인 데서 생긴다. 빗자루는 먼지를 날리고 이것은 또다시 진열품 위에 앉는다. 젖은 걸레는 젖은 먼지를 모아 이것을 마루 위에 남기는데 이것이 마른 뒤에는 또다시 먼지로 변하게 된다. 대청소는 폐관하여 수일에 걸쳐 하게 된다. 고로 폐관 중 일부라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래 먼지를 없애려면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먼지가 관내에 들어오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창과 건물의 틈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람자의 신발에 묻어서 들어오는 것이다. 전자를 방지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창을 닫아두고 환기 설비로서만 관내 공기를 신선하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특히 조선 같은 환경에서 심하다. 구미(歐美)에서는 도로에 돌, 아스팔트, 목재를 깔아두는 까닭에 흙이 적다. 신발을 닦으려면 '매트'로도 족하다. 조선에서는 가로에 흙이 많은 까닭에 이것에 대한 설비도 여러 가지 필요하다. 신발은 흙을 가져오는 수가 많으므로 이것에 '커버'를 씌울 필요가 있다. 입관 전에 걸어오는 관내 도로에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포장함은 신발의 흙을 털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

다음에는 관내에 정숙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음 설비가 필요하다. 음향에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과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창을 닫아 방음한다. 관내에서는 고담흥소(高談哄笑)를 금한다. 또 어린이들의 놀이는 이를 말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난방설비는 영, 미, 독, 불, 소 등의 나라에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혹은 공공시설로서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같은 부국(富國)도 석탄비의 부담에 곤란을 느낀다. 구미(歐美)의 박물관 경비 중 석탄비가 제일 높다.

제5절 진열실의 채광법

진열실의 채광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천연광(天然光), 두 번째는 측면광(側面光), 세 번째는 인공광(人工光), 즉 전기와 가스등이다. 천연광은 가장 이상에 가까운 채광법이다. 그 장점은 빛이 진열실 전부에 미쳐 측면광의 광력(光力) 부족과 음영(陰影) 등에 폐단이 없다. 단점은 천창(天窗)의 면적이 넓을 적에 광선이 진열장 유리에 반사되어 진열장 내의 진열품을 보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광은 광력(光力)이 강하여 회화 중 색채

진열품을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인공광은 바람이 심할 적에는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또 여름 강렬한 광선을 받아 기온이 높아지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 여하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측면 창은 천창(天窓)에 비해 광선을 받아들이는 양이 적다. 측면 광도 역시 반사를 피해야 한다. 이것이 그 진열품을 손상시키고, 또 아침, 저녁으로 빛이 들어올 때는 관람자의 눈을 피로하게 한다. 측면광 중 감상에 가장 적당한 것은 북창(北窓)으로부터 들어오는 광선이다. 이것은 반사광선이기 때문이다. 박물관도 역시 북광(北光)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로 북쪽 벽에는 큰 창을 설치해야 된다. 인공 채광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야간 개관을 할 정도이니까 매 관마다 전등의 설비가 있다. 눈이 내리거나 흐린 날에도 점등한다. 현재 사용하는 ‘텅스텐’ 광은 황적색인 고로, 태양광선과 같은 광선을 사용하려는 연구가 거듭되어 지금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형광등이라는 것이다.

진열실 벽의 색깔은 강하게 광선을 반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리석 벽과 마르는 이런 페단이 있다. 이에 반해 광선을 잘 흡수하고 조금도 반사하지 않는 것은 ‘비로드’이다. 그리고 그의 색에는 여러 가지 이론(異論)이 있으나 요컨대 진열품의 색채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미국인은 벽색으로 백, 회, 흑색 같이 명암만을 이용한다. 그 중 백색은 반사가 세고 흑색은 불쾌한 까닭에 옅은 회색을 사용한다. 결국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박물관은 진열품이 주(主)가 되고, 건물은 종(從)이라는 것이다.

제6절 창고

창고는 내화(耐火), 내진(耐震), 내습(耐濕)의 성질을 구비해야 된다. 내화 창고라 해도 부근에 연소할 만한 가옥이 있을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화재는 면하였더라도 열도(熱度)로 말미암아 창고 내에 물품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는 까닭이다. 내습 설비는 특히 조선에 필요하다. 습기를 받을 적에는 유화는 ‘곰팡이’가 생기고 동양화는 점이 생기고, 건습(乾濕)이 심할 적에는 목재품의 축소와 팽창이 생긴다. 고로 일정 적당한 수분을 보유해서 변화를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다.

창고에 재고품(在庫品)이 많아 전부 진열할 수 없을 적에는 창고 부근에 작은 진열장을 설치하고 반출을 편리하게 해서 진열품의 손상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수선실, 사진실도 창

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창고 내에 장(櫥) 같은 설비는 소장품에 따라 달라진다. 창고에는 운반차, 진열품을 걸어놓는 못 장치 등이 있으면 편리하다.

제7절 강연실

박물관 내에 강연실은 학교 등의 강연실과 같다. 박물관의 강연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애호가, 연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수는 많지 않다. 미국 강연실의 수용인원은 약 150명부터 200명 사이이다. 박물관 강연실에는 환등 영사기 및 스크린의 설비가 필요하다. 또 주간(晝間) 영사(影寫)에 필요한 각 설비도 고려해야 된다.

제8절 도서관

박물관 부속 도서관은 소규모인 것이 보편적이다. 대개 진열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서, 표준적 연구서, 고고학 잡지, 미술 잡지, 미술품의 사진 등을 준비하면 족하다. 관람자는 진열품을 보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외에 하역실, 사진실, 응접실, 사무실 등에 대한 것은 생략한다.

제5장 진열법

제1절 진열품 진열법

진열품을 관내에다 진열하는 것은 관람자 연구에 편리를 도모하여 배치하는 것으로서 단지 이것을 나열시키는 것은 아니다. 먼저 회화에 관해 한마디 하건대 구미인(歐美人)은 유리장 속에 회화를 진열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화, 수채화, 템페라화 등 내구성이 있어 먼지가 묻어도 씻기가 용이하고 변색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나 귀중한 회화는 손상을 두려워해서 유리로 이것을 보호한다. 이는 특별한 조치인 만큼 회화의 위치 등을 자유로 변경하여 유리에 반사가 없도록 한다. 측면광에 의존하는 진열관은 왕왕 광력(光力)이 부족해지고, 또 템페라화, 유화의 면에 반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회화 중 채색이 미약하여 광선을 받으면 퇴색할 우려가 있는 것은 진열장 앞 또는 그림의 앞에 장막을 쳐두되 관람자가 열어서 보고 또 닫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조각품은 제작자

가 처음부터 광선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 많다. 진열자는 빛을 받는데 가장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조각상을 비추는 광선은 전면의 좌우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정면에서 오는 광선은 조각상의 전면에 명암이 없게 한다. 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배후에서 오는 광선이다.

미술 복원품(Reconstruction)의 문제는 조각품에서 일어난다. 조각품의 일부가 파손되고 또 분실되었을 때 그 원형을 밝혀서 복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복원에 종종 착오가 생긴다. 고로 원형이 명확치 않으면 행하지 않은 것이 현명하다. 조각품의 진열은 주위에 여유를 두고 위치를 바꾸어 감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조각의 입체성에서 오는 당연한 요구다. 만약 여유가 없을 때에는 조각상을 회전시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조각품은 비교적 먼 곳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특히 우수한 조각품에 한해 취하는 방법이다. 소예술품 및 미술공예품의 진열에 관해서 말할진대 데생(Dessin), 소품화 등은 회전식 전람대를 사용한다. 도자기, 공예품, 고고학적 자료 등은 유리장 또는 상자 내에 진열한다. 상자의 일종에 회전식이 있다. 극소 진열품으로 장 바깥에 진열할 수 없고, 또 장 내에 두었을 때 이면(裏面) 등에 새겨진 명문을 볼 수 없는 것은 거울을 이용한다. 이것을 장의 배면에 붙이면 물품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또 물품의 아래 면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물품을 유리판 위에 얹고 이 유리판의 밑에 거울을 장치한다. 거울은 30도의 각으로 뒤 쪽을 높게 한다. 극소한 귀중 진열품은 확대경에 비추어 확대 렌즈를 통해 보이도록 한다. 진열품의 설명은 진열품 목록 참고서와 같이 상세할 필요가 없다. 설명에는 목록 번호, 품명, 명제(命題), 연대, 작자, 전래 소유자 등을 기입하고 또 특별한 내력이 있을 적에는 간단하게 이것을 기입한다. 외국품은 그의 산출국명, 도시명을 기입한다. 학자의 논문이 있을 적에는 그 서적 또는 잡지의 권수, 호수 등을 설명에 기입하는 것이 좋다.

제2절 진열품의 분류

진열품을 수집하되 방치하고 진열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소위 혼합 진열이다. 이것은 개인의 집단적 기증 또는 소박물관이 그러하다. 진열품의 분류는 미술박물관,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등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술박물관을 중

심으로 논술하려 한다. 진열품을 대별하여 미술품과 고고학적 유물, 자연과학적 진열품으로 한다. 미술품은 회화, 조각, 미술공예 등으로 분류한다. 이것을 세분화한다면 회화를 템페라화, 수채화, 유화, 동판화 등 제작방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작과정으로는 완성화와 습작으로 나눈다. 또 제작목적에서 순정(純正) 회화, 장식(裝飾) 회화로, 제목으로 봐서는 종교화, 세속화로 구분된다. 여기서 종교화는 다시 성체화(聖體畵), 성자화, 종교세태화(宗教世態畵)로, 세속화는 초상화, 풍경화, 세태화로 나눈다. 보통 행하고 있는 것은 제작방법 또는 화제(畵題)로 본 분류방법이다.

조각품은 원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청동, 돌, 도자, 목재 등이다. 또 목적 제재(題材)로 본 분류가 있다. 미술공예품은 용재(用材)로 보아 도자기, 칠기, 동기(銅器), 석기, 유리, 토기, 견포(絹布), 마포(麻布) 등으로 나누고 또 목적상으로 가구, 식기, 의복, 갑주(甲冑), 다기, 제기 등으로 분류한다. 고고학적 유물은 보통 용재적(用材的) 분류와 용도적(用途的) 분류를 사용한다. 이것은 미술공예품과 중복됨으로 생략한다. 자연과학적 진열품의 전문성에 따라 분류하되 동식물, 광물, 전기공업 등이다.

다음은 지리적 분류법이 있다. 우선 동양, 서양의 구별이 있는데 동양은 조선, 소아시아, 인도, 중국, 서진(西藏), 일본 등이고, 서양은 그리이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소련, 스웨덴, 덴마크, 미국, 영국 등이 있다. 이 분류는 근대 진열품에 적용하기 좋고, 고대 진열품에 적용하기 어렵다. 역사적 분류법은 인류 문화의 발전 변천을 가르치는 다대한 효과가 있으나 여기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문명사적 분류법은 역사적이고 또 지리적인 것으로 문화의 원천을 밝힌다. 예컨대 이집트 미술이라 함은 지리상의 명칭이 아니다. 이 미술은 기원전 약 5천 년 전부터 기원에 이르기까지의 이집트 문명의 산물이다. 이를 문명사적 분류로 적은 것을 유파별(流派別)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술적 가치에서 본 분류가 있다. 진열품을 진열할 적에 그 우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제3절 특별 전람

수집품이 많을 때 또는 품질이 약하여 진열하기 위험할 적에는 이것은 창고에 간직하여 희망자에게만 전시시킨다. 후자는 서양 판화, 애칭, 동양화 등이다. 특별 전람은 개관시간 내에

는 언제나 이를 허락하고 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사무원이 부재가 아닌 이상 반드시 이것을 행한다. 전람의 장소는 창고 내이다. 취급자는 충실하고 미술을 애호하는 사람이다. 사무원은 반드시 출장(出張)치 않아도 좋다. 창고의 설비는 완전하고 목록이 정밀한 까닭에 희망의 물품을 찾기 용이하다.

제6장 박물관의 사업

제1절 진열품의 수집과 보관

박물관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과 보관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존재 이유에서 파생하는 본질적 사명이며, 또 박물관이 한 국가 또는 한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관리한다는 높은 의미의 문화수호자 내지 문화육성자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수집이라는 것은 분산 또는 매몰되어 있는 문화재를 적극적, 능동적 활동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으로 문화 보존의 제1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또 보관이라는 것도 수집한 문화재의 생명을 시간적으로 연장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로되 즉 파괴, 산일(散逸)된 것을 복원시켜 재생의 방도도 고려하는 것이 보관의 적극성이다. 결국 박물관의 원시적 목적은 이러한 문화재의 수집과 보관을 통해 문화전승이라는 숭고한 역할을 하는 데 있었고, 또 이 목적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수집품에 관유품(館有品)과 기탁품(寄託品)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래 구입비 부족으로 관유품의 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움은 미국 같은 부국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미술품이 시장에 나왔을 적에 곧 이것의 구입에 필요한 거액의 지출에는 회의가 필요하여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수도 많다. 최근 구미 박물관의 수집에는 구입은 적고 기증 또는 유증(遺贈)이 많다. 기증과 유증의 성쇠(盛衰)는 사회도덕 상의 문제다. 기증품을 받으려면 감정이 필요하다. 기탁품은 이것을 박물관에 진열하려고 기탁을 신청하는 것과 수집가가 이것을 박물관에 보관시키는 것이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기탁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박물관이 보관비를 받아 개인의 물품을 맡을 수는 있다.

제2절 교육과 연구

박물관의 근대적 사업으로서 교육과 연구가 있다. 교육은 강연과 출판 등을 통해 대(對) 사회적으로 이를 행한다. 강연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당 강연이고, 또 하나는 순람(巡覽) 강연이다. 강당 강연은 박물관원이 행하고 또는 학자를 초청한다. 순람 강연은 관원이 관람자를 인솔하여 각 실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것이다. 집합의 장소 및 시간은 입구에 제시한다. 대개 오전, 오후를 통해 2회 또는 3회를 행한다. 강당 강연은 야간 또는 토요일 오후에 이를 행하고 주제에 따라서 연속 강연을 하는 수도 있다. 특별한 소개가 있는 자나 학생 등에게는 무료권을 준다. 출판은 박물관 관계 학문에 관한 연구발표와 또 관보의 발간, 복제 사진, 복제 그림엽서 또는 학술잡지, 진열품 목록 등을 통해 문화 계몽을 하는 것이다. 복제 사진, 복제그림 엽서는 박물관 사진부의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박물관이 판매한다. 진열품 목록은 염가로 제작한 것과 고가로 사진 등이 있는 것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관내 진열품의 학술적 연구, 진열품에 관한 논문이 있는 학술잡지는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좋다. 박물관 진열품 목록 외에 관외 간행의 여러 종류의 목록이 있다. 이것은 학자의 관내 진열품에 관한 독립 연구의 결과이다. 이들 목록도 박물관의 판매대에 구비하면 편리하다. 박물관이 학자를 위촉하여 진열품을 연구시킨 논문의 인쇄물도 역시 같다. 박물관에 부속시켜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이 부속 도서관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보면 장차 박물관 학교도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연구에 힘입어 민족문화의 중심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관원 중에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있어 항상 연구발표를 하며, 또 진열품을 제공하여 학자에게 연구를 시킴으로써 이들 성과를 간행한다. 이 연구는 한층 더 나아가 탐험대 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 탐험 혹은 조사가 소규모인 것은 개인을 파견하고 또 여행가, 유학생을 촉탁한다. 이들 탐험, 조사비용을 반드시 박물관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관원의 권유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일이 많다.

제7장 박물관의 사무

제1절 목록

목록은 수집품을 분류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목록은 고고박물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각 전문적 입장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개 종류로 분류하고 그 종류(中類)를 세별하여 번호를 붙였다. 예컨대 'A-125번'이라는 번호가 있으면 A는 종류별로 나눈 창고 내의 장(櫥) 또는 상자, 125는 그 번호인 것이다. 사무실에는 진열품 대장이 있고, 목록함을 두어 여기에 카드식 목록을 넣어둔다. 카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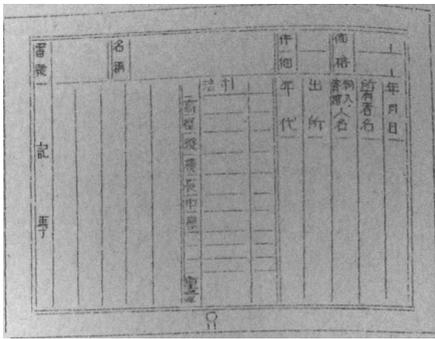


그림 2. 유물카드 양식

이 카드 뒷면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카드는 진열품 하나에 3매를 만들어 각각 보관하여 하나가 분실, 소실되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첩찰(貼札)

진열품에 붙일 첩찰은 1촌(寸) 이하 크기의 장방형 딱지로되 함 번호, 진열번호 등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도기, 칠기 등 기타 작은 진열품은 얇은 글씨로 인쇄된 번호가 있는 작은 지찰(紙札)을 도기 바닥에 붙인다. 외부 상자에는 따로 큰 번호찰을 붙인다. 그리고 토기, 와류(瓦類), 석기 등에는 필묵으로 직접 기입하는 것이 좋다.

제3절 개관과 폐관

개관시간은 8시, 9시, 10시 중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이를 선택한다. 대개 개관시간

이 하절기에 8시가 되면 동절기는 9시로, 하절기에 9시가 되면 동절기는 10시가 된다. 또 1년 모두 10시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개관 전에 관내 청소를 위해 순시하는 청부를 약 1시간 일찍 출근시킨다. 개관시간을 정할 적에는 토지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은 개관이 늦는다.

폐관은 4시, 5시, 6시인데 1년 모두 5시가 될 수도 있다. 북유럽은 일찍 폐관한다. 또 동절기 개관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연료를 절약하는 데 이익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오부터 2시까지 폐관한다. 이것은 남국(南國)의 더위로 말미암아 정오부터 3시까지 상점 등이 폐점하는 풍습을 따른 것이다. 구미에서는 일요일 오전 중에 폐관하는 사례가 많다. 또 일요일에 폐관할 경우 순시에게 일요일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사례도 있다. 사무원은 일요일에 휴무하고 월요일 출근하여 관내를 정비한다.

제4절 관람료

관람료는 박물관의 주요 수입은 아니다. 관람자에게 받는 작은 기부금이다. 고로 박물관의 수입은 그 지출의 몇 백분의 일도 못된다. 그리고 단체에게는 할인해 주고, 또 무료입장권 소지자와 선생님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 등은 무료로 관람시킨다. 그리고 구미(歐美)의 박물관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주일에 2~3일을 무료 관람일로 설정하고 있다.

제5절 순시(巡視)

순시의 사무는 도난, 화재의 방지, 관람자 행위의 감독, 청소 및 기타 관람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과 채광, 환기, 난방의 조절 등이다. 도적은 순시와 싸워가며 흠치는 일은 없다. 순시와 결탁하여 흠치는 일이 많다. 고로 순시는 힘보다 절조(節操)가 필요하다. 만약 관람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더욱 좋다. 박물관 입구 등의 장소에만 남자를 두고 다른 곳에는 여자 순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실하고 다소 교육이 된 자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제8장 조선의 박물관

제1절 총설

박물관의 발달은 그 국가 및 민족문화의 척도이다. 문화적 수준이 높은 민족은 자기 문화 자산을 전승 내지 보존하려는 욕구가 왕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화전승과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박물관 제도이다. 그러나 박물관 제도의 발전은 총체적 문화 정도의 지양(止揚)이 요구되나 직접적으로는 학문의 발전 예컨대 동식물, 광물학의 발달,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의 발전이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이제 조선의 박물관을 고려하건대 조선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적으로 문화적 기반이 박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용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선의 박물관 역시 빈약한 정도를 면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 제도가 방법론에 있어 서양으로부터의 수입인 만큼, 서양 문화의 수입이 늦은 조선으로서 박물관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고, 또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민족문화가 양양(昂揚)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박물관 제도를 확립시키고 또 일반인민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는 것은 긴급한 일에 속한다. 현재 조선에 있는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기도 서울 국립박물관
- ② 경기도 서울 국립민족박물관
- ③ 경기도 서울 덕수궁미술관
- ④ 경기도 서울 국립과학박물관
- ⑤ 경기도 인천 인천부립박물관
- ⑥ 경기도 개성 국립박물관 개성분관
- ⑦ 충청남도 부여 국립박물관 부여분관
- ⑧ 충청남도 공주 국립박물관 공주분관
- ⑨ 경상북도 경주 국립박물관 경주분관
- ⑩ 경상북도 대구 대구부립박물관

그러나 박물관 건축에 있어 계획적 설계를 한 것은 덕수궁미술관, 개성박물관 등이고 기타 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 까닭에 모든 조건이 박물관으로 적당하지 않다. 조선에는 조선 문화를 한 곳에 전시할 수 있는 종합적 대박물관의 건설이 필요하다. 적어도 현재 과도정부 청사만한 박물관이 서울에 건립되는 날 조선의 박물관은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박물관 각설

제1항 국립박물관

현재 남조선에는 국립박물관 서울 본관과 개성, 공주, 부여, 경주 네 개소에 분관이 있다. 서울 본관은 명실공히 조선의 대표적 박물관으로서 소장품은 막대한 수에 달하고 동양 전반 문화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많다. 더구나 위치가 구) 경복궁에 소재함으로 이곳을 관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적 감정에 잠기게 한다. 동으로 광화문, 서로 경희루, 남으로 근정전을 싸고 중정이다 조선 각지에서 모은 유명한 석탑, 석등을 진열한 것은 자못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진열 본관은 일본인이 공진회(共進會) 때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조선의 대표적 박물관으로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제2항 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은 구) 경주부윤의 관사였던 온고각(溫古閣)을 중심으로 집고관(集古觀), 금관고(金冠庫), 종각 등으로 순 조선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볼 적에 조선식 건물이 전술한 박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신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주의 향토박물관으로서 조선식 건물이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경주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가지가지의 국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가장 좋은 박물관 중 하나다.

제3항 부여박물관

부여박물관도 역시 구) 객사를 이용한 박물관으로서 경주박물관과 같이 향토적 색채는 있

으나 과학적으로 좋은 박물관은 아니다. 더구나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장차 발전할 여지를 봉쇄하는 것으로 부지도 있으니 좋은 박물관을 신설하여 백제문화를 간직하였으면 연구자 및 관람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4항 공주박물관

공주박물관 역시 박물관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다. 구) 진열관을 해방 후 국립박물관 공주 분관으로 만들었는데 부여박물관과 함께 유물이 적은 백제문화의 연구에 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제5항 개성박물관

해방 전까지 개성부립박물관이었던 것이 해방 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이 되었다. 건물은 박물관으로 신축한 것인데 규모가 너무나 작고 또 건물의 의장(意匠)에도 실패한데다 색도 좋지 않다. 그러나 위치는 매우 좋다. 이곳은 고려문화를 연구하기에 적당한 박물관이다.

제6항 국립민족박물관

구) 총독관저를 이용하여 해방 후에 개관한 본 박물관은 전통이 짧아 모든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건물은 주택으로 건축된 까닭에 진열실로서 불편한 점이 많다. 더구나 진열장의 빈곤은 진열품의 품격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나 빈약한 과도정부 예산으로 탄생된 본 박물관에게 그 이상 더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본 박물관의 조선 문화적 입장은 자못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민족문화의 문제를 운운하는 오늘에 있어서.

제7항 덕수궁미술관

현재 조선에 있는 박물관 중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곳이다. 건축 당초에 설계나 양식을 계획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위치가 구) 덕수궁에 있고, 더구나 서울의 중앙부에 있는 까닭에 관람자에게 매우 편리한 곳이다. 그러나 석조전은 미·소 공동회

의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따라서 미술관도 휴관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민족문화 수립을 위하여 전면적 활동이 시작된 이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덕수궁미술관은 개인 소유라는 성격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으니 곧 소장품 문제와 경영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제8항 국립과학박물관

조선의 유일한 과학박물관은 구) 총독부청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시설이나 설비의 완벽을 기하기 어려움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조선 유일의 박물관으로서는 건물이 협소하고 더구나 진열품이 빈약한 단점이 있다.

제9항 인천부립박물관

항도(港都)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창설된 인천박물관은 황해를 내려다보는 서공원(西公園) 위에 있어 위치는 매우 좋다. 그러나 건물이 구) 독일인의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박물관으로서 그리 편리한 곳은 아니다.

제10항 대구부립박물관

국립박물관 대구분관으로 계획한 대구박물관은 빈약한 과도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구부립박물관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위치는 달성공원에 있고 건물도 매우 좋다. 그러나 채광(採光) 등 과학적 견지에서는 그리 칭찬할 수 없다. 더구나 진열실을 더 유기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감이 있다.

지 은 이 이경성
엮 은 이 배성수
교 정 안성희
디 자 인 김미경, 이성용
출 판 디자인하다 MK

발 행 인 유동현
발 행 일 2022. 4. 1.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32

